

개원 15주년

수도원에서 Abbey 들려오는 소리

23일
MAY

발행처 : Protestant Abbey Mission / 발행인 : 김예스더(정영선) / 편집인: 사무엘 김창길 발행일 : 2026년 5월 1일 / 계간지



° ½ Å ¾ ð ù ø ð Æ ,
Protestant Abbey Mission
www.pamvoice.com

PAM 수도원에서 살리라

김창길 (Samuel Chang Kil Kim)

소나무 가지 사이로
높이 뜬 흰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하얀 나즈막한 나무 십자가는
원 종일 밖에서 묵묵히 말씀 읊조리며

목회를 은퇴하고 열 다섯해 동안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때론 퍼붓는 소나기와 눈보라 속에서도
오직 수도원을 지키는 청지기

예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지난날 관습과 제도를 벗어나
순수한 침 교회로 되돌아가
다 내려놓는 청순한 수도자가 되어

사모하는 발걸음으로 달려 갑니다
시간이 다 닳도록 혼자 머무는
말이 필요없어 그냥 살아있는
맘에서 복바치는 기도가 울려터지는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가진게 남아 있는
뺨에 흐르는 눈물로 툭툭 떨어내는 수도원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자가 되어
영혼과 육신의 청빈을 실행하는 수도자

수도원 뜰 일곱번 돌고돌아
삼 곡괭이 호미로 마당 구석을 찾아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

시문학 등재
문학세계작가상
광나루 문학상 10회(시 부문)
시집 "떠나온 그리고 또 떠날 사람",
"예담원의 뜰", "부서진 돌 십자가"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PAM) 창립 15주년에 부치는 글



원장 김 에스더 목사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조선선교 140년만에 너무 빨리 세속화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이천년 전 순수하고 소박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뿌리가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내리기 전에 외형적인 겉 모양에 기울어져 흔들거립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하신 복음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오물이 끼었습니다.

교회가 세태에 따라 비대화되어 제도화가 되고 Mega Church가 되어 건물의 확장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양적인 확장에 몰두하고 물질의 풍요함에 안주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전인적 영성구원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살려내는 일에 둔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도취에 빠져 소명에 대한 인식이 일차적인 Original에서 두번째인 Secondary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기본적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에 바른 복음이 올곧게 세워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가법고 편협한 기복적인 신앙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술하게 성경공부가 많이 가르쳐졌고 쟁쟁 울려대는 설교가 크게 외쳐졌지만 이상하게도 진리가 밝히 증명되는 곳이 흐릿하고 웅장한 설교 웅변이 삶으로 와 닿는 목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Covid Pandemic을 거치면서 현대인들은 굳이 바쁜 세상에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video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그나마 MZ 세대는 예배는 아랑곳 없이 아예 신앙을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급변하는 세상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

와 지는데 교회만이 안일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김창길 목사님은 뉴저지장로교회를 30년 10개월 섬기다가 15년전인 2010년 은퇴를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숙고 중에 그동안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미진했던 부분을 아파하며 고민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가? 말로 만이 아닌 실천하는 삶 말입니다. 이리하여 개신교수도원(Protestant Abbey Mission)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의 소명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 이제 함께 개신교수도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생활로 돌아가자. 수도원 운동입니다. 서약서를 썼습니다.

1.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기
2.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3. 하루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실천하기
4.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5. 매일 운동하기

때론 바쁘다고, 때론 잊어 버리고, 게을러서 실천 못할 때도 있었으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개신교 수도원은 산속 깊은 곳, 조용한 한적한 곳이 아니라 도시 가운데 있어 찾기 쉽고 오기 편한 곳 잠깐 머물러 기도하고, 묵상하고,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성경읽고 편하게 왔다가 쉬고 가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아린 아픔을 풀고 다시 일어나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Supervision Class 와 Lectio

Divina Class는 한달에 한번씩, 원로은퇴성직자 모임은 두 달에 한번씩 모두 50여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수퍼 비전 월요모임은 삼사십대 목사님들 모임으로 이민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토의 진단하며 미래목회 희망을 다짐하며, 오육십대가 모이는 렉시오 디비나는 매월 책을 선정하여 읽고 발표 토의하며 오늘 나와 목회에 주는 가르침을 배웁니다. 원로성직자 모임은 정기예배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회원들의 목회여담을 들으며 주보에 조각글이 실리는데 조만간 책으로 묶으려 합니다. 정기예배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이민교회 후배 사역자를 위해 통성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10회째 2박 3일로 모였던 사모수련회는 협력목회자로서의 사모로, 어머니로서 사명감을 재충전하며 밤이 새도록 실컷 울며 기도하며 새힘과 새 소망을 받아 사역지로 되돌아 가곤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수도원 chapel은 필리피노 식구들과 10년째 영어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주 수도원여성성경반과 수도원 남성성경반을 줌으로 하는데 미국의 타주와 캐나다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PAM의 모임은 초교파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여러 교단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여 상호 차이가 있는 신앙전통을 이해하며 목회적인 협력을합니다. 모임 후에 점심친교는 번갈아 가면서 자발적 봉사를 합니다. 이일은 누구에게 손 벌리는게 아니라 물질문제에 있어서 독립적 주체성을 보여 줍니다.

수도원의 도서관에는 2000여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고서와 역사서 미국서 보기도문 한국 기독교 서책이 있습니다.수도원에 한국기독교 이민박물관을 개관하여 유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작품,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기숙사에는 10여명이 기숙할 수 있으며 유숙한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의 계간지가 23호로 창립 15주년 기념호로 발간합니다. 수년동안 재정적 사정으로 휴간했었습니다.

매년 수도원에서 창립기념일 예배 때에 수여하는 "경건한 목회자상"은 올해는 6번째로 뉴욕 Area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수여됩니다. 이일은 불미스런 평을 받는 소수의 목회자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가끔 발생함으로 얼마나 교회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진실한 목회자가 많은지 기억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PAM이 펼쳐온 수도원 정신은

1. 작은 목회에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의 인기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부르심에 철두철미 충성하는 신앙의 함양에 있습니다.
2. 모든 일에 다툼이나 경쟁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일입니다
3. 교파와 연령과 배경의 다름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남을 존경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5. 모든 것에 기도하는 것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PAM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직교회가 아니라 교인도 별로 없었지만 때론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PAM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 주신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PAM에 보내어 일하셨습니다. 본래 세계적으로 수도원 원장직은 종신제이지만 창립 원장님은 보다 새로운 개신교수도원의 정진을 위해 2019년 6월 3일에 저에게 2대 원장직을 물려 주셨습니다. 앞으로 3대 수도원장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제 2 대 원장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과(B.A.), 프린스턴 신학교(M.Div.)
예일대학교 신학부 (STM), 드루대학교 (D. Min)
미국장로교(PCUSA) Presbytery of Northeast NJ 소속 목사

개신교 수도권 수도회(PAM)를 향한 기대



이사장 김경호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한다면 지금같이 혼탁하고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산에 올라 서울 시가지 사방을 둘러보면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당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백 수천이 넘는 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수백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두운 곳을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등대이며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사회 공동체에서 소금으로서 자신을 녹여 짠 맛을 내어 부패를 막고 정의가 살아나게 하는가?

기독교의 살아있는 진리는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으로 인해 산소동화 작용을 일으켜 생명은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빛은 뜨겁습니다. 빛은 사방을 비추어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게 합니다. 기독교회는 사회의 양심입니다. 기독교인은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이천년 넘는 동안 교회는 문화와 시대사조의 소용돌이 도전에서 부단히 살아 빛을 발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기독교회는 그냥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거추장스레 가진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수도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세기 3세기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위해 기도생활, 말씀실천을 위해 세상의 안일과 부귀를 접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과 교회는 수도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 합니다.

첫째, 교회가 부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 지나치게 건물을 크게 짓고, 내부

시설을 강당이나 방송국 마냥 최신식 인테리어와 음향시설을 흥내내지 마십시오. 교회부흥은 Mega Church가 되는게 아닙니다. 교회위치에 적당하게 교인들의 분수에 맞게 합시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진솔하고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사치에 끌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둘째, 말과 이론보다 실천합시다.

말과 혀로만 믿는게 아니라 조그만 한가지부터 실천합시다. 성경공부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실천실행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고 부족해 방언까지 하는 데 방언보다도 사랑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로 머리와 귀와 입이 발달되어 성도들은 말과 논쟁에 탁월한데 말은 적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합시다.

셋째, 조용한 묵상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조용해 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 옵니다. 바쁘고 쫓기고 시끄러우면 주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취침 전에 조용한 명상을 하십시오. 묵상은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넷째, 자주 교회당을 찾아 가십시오.

교회는 내 영혼의 안식처 집입니다. 거기서 성경읽고 기도 드리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함과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집입니다. 때로 교회봉사를 하십시오.

다섯째, 개신교수도원 운동이 세계적인 신앙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신교수도원 운동은 영성훈련입니다. 떠돌고 소리치는 곳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개신교회에 맞는 경건한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지속되기 바랍니다.

우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교회제도와 규칙에 얽매여 근본적인 것을 잃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건과 믿음을 놓칠때 우린 수도원에서 믿음의 보충을 받습니다.

연세대학교 화학과 졸업
서소문교회 은퇴장로
개신교 수도권 수도회 제 4대, 6대 이사장(한국)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창립 15주년을 축하하며



김영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개신교수도원수도회 (PAM)가 창립된 지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래 전부터 김창길 목사님에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이민사회에서 달음질하느라 영과 육이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식과 충만한 영성으로 이를 극복하게 할까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열망이 목사님의 은퇴 후 개신교수도원수도회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처음 김창길 초대원장 목사님과 수도원 터를 찾기 위해 업스테이트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여러 군데 다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개신교수도원수도회의 사역들을 펼치기에 알맞은 장소와 건물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치와 가격, 그리고 용도에 합당한 건물 등등...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가격과 거리는 적절한데 건물들이 너무 허름하여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업스테이트에 있는 한 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 수풀과 흐르는 물 등 아름다운 환경에 아담한 건물들이 수도원으로서 매우 적합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방문지들을 놓고 기도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개신교수도원은 사역의 특성상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사역들이 매주 혹은 매월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간 이상씩 운전해서 와야 한다면 참여할 의욕을 잃기 쉬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저지 보고타에 매우 적합한 곳을 찾았으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허가를 얻기도 거의 불가능해서 매년 지불해야 할 세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현재의 미국인 교회터를 소개 받았고, 가격이 약간은 부담되었지만, 원장 목사님 내외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의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내부와 외관이 삭막하고 허름했지만, 원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후원에 힘입어 지금의 단정하고 은혜로운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분들은 부엌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Renovate 하면서 조명과 주방기구 일체를 새로 설치하고, 건물의 1층과 2층을 새로 페인트 칠하는 등 전혀 노임을 받지 않고 기쁘게 공사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또 정성 어린 헌금으로,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힘을 보탠 결과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수도원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대원장님과 렉시오 디비나 클래스에 아내와 함께 처음부터 동참하면서 2023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하기까지 약 12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뉴저지 Closter부터 시작하여 River Edge, 그리고 귀국하기 전 5년간은 Manhattan에서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차에 태워 주실 때도 있었고, 원장님이 바쁘신 데도 친히 라이드를 여러 번 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아내와 배낭을 메고 10여 분 걷는 것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렉시오 디비나 클래스를 위해 읽는 서적들이 나의 영을 풍요롭게 채워주었고, 10여 명이 모여 발제를 하거나 들으며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는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들을 캐낼 수 있었던 것이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철을 제외하고 매월 거의 한 권씩 아우구스티누스를 위시한 많은 선진들의 고전과 복음서, 중세 수도사를 위시하여 현대 영성작가에 이르기까지 수십 권의 책들을 접하게 된 것이 참으로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약 2시간의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도시락이나 가까운 음식점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즐거움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이따금씩 가까운 Nature Center나 산에 하이킹을 가던 기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초대원장님과 김에스터 원장님 내외분을 뵈면 은퇴 후에도 뒤로 물러나 노후의 삶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시고, 또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들이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맑은 영으로써 세태를 분별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수도원 공동체의 영성이, 마치 물컵에 떨어진 잉크가 온 컵에 퍼지듯, 또는 powerful한 정제약이 오염된 물에 들어가 정수 작용을 하듯, 지속적으로 사회 공동체 구석구석에 퍼져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신

교수도원 수도회는 중세 수도원의 뿌리 깊은 영성을 개신교의 개혁정신과 영성에 접목시킴으로써, 물질과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탐욕에 매몰되어 가는 현 세태에서 신앙인들조차도 휩쓸어가는 물결을 저수지에 담아 정화시켜서 건강하게 흘러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파와 뒤섞여 걸리지 않은 탁류와 같은 영성이 교회에도 침투하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탁류를 정제하여 명징(明澄)한 영의 물줄기를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PAM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현장에서 크리스찬들은 더욱 깊은 영적 단련이 필요합니다. 개신교수도원이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맞게 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여 지친 영혼들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서 많은 하늘의 군사를 길러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신교 수도원 렉시오 디비나 클래스 제 2대 회장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담임 역임
뉴욕 맨하탄새교회 담임 역임
연세대학교 경제과 (B.E.)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M.Div.)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졸업 (Th.M.)
풀러신학대학원 졸업 (M.A. in Missiology, Cross-Cultural Studies)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은퇴목사

원로은퇴성직자 모임

2013년 1월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은퇴 원로 성직자들이 초교파로 두달에 한번(격월로 네번째 목요일 오전 11시)씩 수도원에 모여 예배와 성찬식을 드리며 이민 교회와 후배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 합심기도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매년 갖는다. 회원들이 돌아가며 점심을 대접하며 친교를 나눈다. 참석교단은 UMC, PCUSA, KPCA, KAPC, PCA, AG, SBC, 구세군들로 은퇴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인다.
25번째 주로부터 회원들의 문학작품을 실어 감동을 받고 있다. Covid-19 Pandemic 으로 7개월 동안 멈출때도 있었지만 현재 67회째 예배를 드렸다.

지난날 회장으로 섬기셨던 분

• 초대 회장 김상모 목사	2013. 1 – 2014. 12.	UMC
• 2대 회장 박기태 목사	2015. 2 – 2016. 9	UMC
• 3대 회장 김정국 목사	2016. 11 – 2018. 4	KPCA
• 4대 회장 나정용 목사	2018. 6 – 2020. 1	UMC
• 5대 회장 김병서 목사	2020. 3 – 2021. 9	UMC
• 6대 회장 사공태문목사	2021. 11 – 2023. 3	KPCA
• 7대 회장 김선량 목사	2023. 5 – 2024. 8.	UMC
• 8대 회장 이광희 목사	2024. 10 – 2025. 8.	AG
• 9대 회장 노순구 목사	2025. 10 – 현재	SBC

서평: 삶과 신앙의 시적 기록, 김창길 목사님의 시와 칼럼,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화철

김창길목사님의 책, 「이제야 알았습니다」는 단순한 시집이나 칼럼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민자의 삶과 신앙인의 고백,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성찰과 실천이 고스란히 스며든 한 인간의 '영적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김창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짚으며, 그 안에서 경험한 신앙적 각성, 시대적 고민, 목회적 사명을 시와 산문의 형식을 빌려 고백합니다.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는 단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와 묵상의 공간으로 초대받습니다.

1. 삶에서 길어 올린 시, 그 시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시편에서는 무엇보다도 경험에서 길어낸 언어의 진정성이 돋보인다. 김창길목사님의 시는 수사적 장식보다 내면의 울림을 우선시한다. "하늘을 향한 꿈과 그리움"에서 수도원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시작된 시편은, "어머니 나의 어머니", "Monkeypod 나무 그늘", "COVID-19 병동"과 같은 작품을 통해 개인적 고통, 상실, 회복의 여정을 신앙의 눈으로 응시합니다.

목사님의 시는 시인이자 목회자인 그만의 고백이며, 동시에 독자의 영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십자가상 앞에서", "가상철연", "성금요일 기도" 등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데 탁월한 신학적 깊이를 지닌 작품들로,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경건의 실천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말이 아닌 침묵으로, 주장 아닌 고백으로, 신학이 아닌 영성으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2. 칼럼:

이민자의 시선, 목회자의 눈물, 예언자의 외침

칼럼 편은 더욱 다채롭고 밀도 높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목사님이라 부릅니다", "목회의 도(道)", "설교의 강단을 놓치지 말자"와 같은 글에서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회의 미래는 신학교 교육에 있다", "오늘날 교회는" 등의 글에서는 현대 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합니다. 특히 '이민 목회'의 구성성과 실존적 고민이 칼럼 전반을 통해 반복해서 드러나는데, 이는 김창길목사님이 실제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해오며 겪은 체험에 근거합니다.

목사님의 글은 결코 이상적이거나 교조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변혁해갈 수 있는 신앙적 동력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규선아"라는 글은 한 아버지로서, 인간 김창길의 연약함과 정직한 고백이 잘 드러난 대표적 글입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칼럼은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적 진심과 고뇌, 연민과 용서를 바탕으로 쓰여졌기에 더욱 독자에게 감동을 줍니다.

3. 신앙, 시대, 문학이 만나는 공간

이 책에 보여지는 시와 칼럼은 신앙, 시대, 문학이 맞닿아 있는 접점에서 존재합니다. 한 시편 한 시편, 한 칼럼 한 칼럼이 각기 다른 빛깔을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민자로서의 기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은 현대적 고난을 신앙적으로 성찰한 "COVID-

19 병동"은 목회자의 고백임과 동시에 전 인류가 함께 겪은 고통의 신학적 해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라는 낯선 공간에서 피어난 영적 글쓰기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현대 목회자들에게는 생경한 수도원의 영성이, 김창길 목사님의 시와 칼럼을 통해 재해석되고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시대의 고통과 질문을 품은 글쓰기, 시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언어로서 기능합니다.

4. 신학과 문학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마지막 고백

책의 서문에서 "말과 글의 근본 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보지 않았다"고 고백한 대목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철학을 드러냅니다. 문학 적 완성도보다 신앙적 진정성, 표현의 기교보다 영혼의 울림을 우선시한 결과, 이 책은 오히려 더 강한 생명력을 획득합니다.

이번 시와 칼럼이 김창길 목사의 열네 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고백이 담긴 유작 같은 책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그의 삶 전체를 집약하고 있으며, 후대의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하나의 유산으로 남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시와 칼럼의 문집이 아닌, 신앙과 존재의 고백록이자 목회적 회고록으로 이 책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

서울기독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회장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회장
전 뉴저지장로교회 부목사
연세대학교 신학과 (B.Th)
벤더빌트 대학교 (M.Div)
뉴욕 유니온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박사 (Ph.D.)

사모님 수련회

이민 목회자의 사모님은 외롭고 고달프다. 이중문화권과 언어 장벽의 갈등 속에 벅찬 부담감으로 피곤하다. 이민와서 새롭게 교회 나온 새신자 양육과 한국서 온 기성교회 교인들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목회자를 도와 담당해야 한다. 사역은 빠빠지게 하는데 목사에게 못하는 불만을 일선에서 담당해야 하는 억울함과 고독이 있다. 사모님에게는 이해와 위로가 필요하다.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개신교 수도원은 일년에 한번 직장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모님들을 초청해 2박 3일 함께 울고 웃으며 영육간에 회복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사역지로 떠나도록 섬기고 있다.

- 1회 2015년 6월 17(주일) - 19(화) 워싱턴 에스라 수양관, 김에스더목사(개신교 수도원 부원장), "평화의 영성" 강사: 강선우 사모(김진홍목사 사모), "믿음의 능력"
- 2회 2016년 4월 24일(주일) - 26일(화) 개신교 수도원, 김에스더 목사(개신교 수도원 부원장), "사모라는 존재" 이금하 교목(하버드 대학교 교목), "교회란"
- 3회 2017년 5월 21일(주일) - 23일(화) 개신교 수도원, 오재은 교수"아마도 부부 대화법"
- 4회 2018년 4월 29일(주일) - 5월 1일(화) 개신교수도원, 정희승 사모(Austin)를 푸른교회 사모) "기도로 움직여라"
- 5회 2019년 5월 19일(주일) - 21일(화) 개신교 수도원, 손안젤라 목사(드류대학교수), "기쁨의 영성"
- 6회 2020년 4월 25일(주일) - 27일(화) 개신교수도원, 한진희 목사(뉴욕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리라"
- 7회 2022년 5월 1일(주일) - 3일(화) 개신교 수도원,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겸 신약학 교수), "위드코로나 시대와 바울의 신학과 영성"
- 8회 2023년 4월 23일(주일) - 25일(화) 손대권 목사 (Ed.D., 전 피츠버그 신대원 기독교교육학 교수, Presbyterian Church in Norwood 담임목사) "행복한 자아,건강한 가정과 교회"
- 9회 2024년 4월 14일(주일) - 16일(화) 나구용목사(Ph.D., 뉴저지연합교회 원로목사)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 10회 2025년 4월 27일(주일) - 29일(화) 호성기목사(필라 안디옥교회원로목사, PGM 국제대표) "내가 변해야 공동체가 변한다"

How Mission Trips Shaped My Faith and Calling



Paul Kim, MD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 1 John 3:18 (NIV)

I struggle with this verse everyday with my children. I want my boys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words "I love you" because of the actions that are founded on them. In the same way, faith is easy to keep in the realm of ideas or words—something we believe or say – but far harder to live out in concrete ways. Mission trips helped shift that for me, showing God's love in a tangible and practical way, where service became a living expression of faith that shaped not only how I helped others, but how I found my calling as a pediatrician intensive care physician.

My first introduction to a mission trip took place early in high school. With my local youth group, we went to South Korea and Taiwan – a place that felt both exciting and unfamiliar. What I remember most, though, isn't the travel or even the work – it's the children. Our team spent time with students at an orphanage, trying to connect despite our language barriers. We played games, laughed and bonded, shared our faith how we could and found ways to communicate without words.

I did not appreciate it at the time, but I found myself drawn to helping children especially to those

in need. Whether it was volunteering at shelters or soup kitchens or at hospitals, my focus was on trying to support them however I could. Even it was just attention or connection, I did what I could at the time and in those moments, I began to understand that showing up for someone, especially a child, can matter more than saying the right thing.

In college, my experience in the Philippines deepened that understanding. Our team helped renovate a local school and orphanage, and while the physical work was meaningful, it was the students who left the greatest impact on me. Every day, they would gather around us – curious, energetic, and full of life. Even in a space that needed repairs, they carried a sense of excitement about learning that I often took for granted. We also did medical and spiritual outreach into the community, and we'd see people severely impacted by disease that could have been preventable with simple, proactive interventions.

While, I was honored to have a role and be a support for these children, I found myself called to do a more. How could I help these children particularly the ones that could not help themselves? The answer, for me, was in medicine. I went to medical school to become a pediatrician and to specialize in critical care medicine. With this

training, I currently work at a safety net hospital that accepts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pay and helps provide them with high quality care in the most trying times of their lives.

As a physician, mission work has taken on a more medical focus. I have gone on medical mission trips as part of a larger cardiac surgery team to El Salvador and Mexico. We identify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efects, repair them, and care for them post-operatively through their recovery. We also train staff so that they could develop the skill set to do this work themselves in the future. In some cases, the children we operated on would have died shortly had we not been there. In other cases, we extend their life expectancy by decades. We give children a chance to grow up, to play, to live a fuller life. These moments are real – not abstract service. This was directly impacting the live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profound ways.

Children reveal something essential about faith. Their trust, their joy, and their ability to receive love without hesitation reflect the kind of posture we are called to have. In serving them, I am also reminded of this. My work is not about being a savior. That role belongs to Christ alone. Whether playing games with children in Taiwan, helping build a school in the Philippines, or supporting life-saving care for young patients in El Salvador and Mexico, the calling is the same – to love, serve, and be present. And in that presence, I found my own perspective expanding appreciating resilience, hope, and joy in ways I had never considered.

I continue that work at home here in the states. Working with children in mission settings taught me patience, empathy, and the importance of

presence – qualities that are essential in clinical care. I do my best to listen deeply, observe beyond words, and meet children where they are, not just medically but emotionally. Those lessons have shaped how I interact with patients and families every day, reminding me that care is never just about treatment – it's about relationships, trust, and compassion.

Each of these trips shaped me, but not in the ways I fully expected. They didn't just show me need – they showed me joy. They didn't just reveal hardship – they revealed resilience and the ways faith can flourish even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y forced me to confront my assumptions, to grow in patience and empathy, and to recognize that serving others is inseparable from growing myself.

I do not see mission trips as moments where I went to give, but as moments where I was invited to witness something deeper – faith expressed through the lives of children, the love of God in action, and the transformation that occurs when we step beyond our familiar world.

If there is one lesson that continues to stay with me, it is this: to love in action is to reflect the heart of Christ – and in doing so, we often find our own hearts changed. 

Paul Kim, M.D. is a pediatric intensivist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Benioff Children's Hospital Oakland. He has been a physician for twenty-two years. He also sits on the board of the Protestant Abbey Mission. Mt. Sinai Medical School (M.D.)
Yale University (B.S.)

내가 본 수도원의 15년



Brian Park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멀리 캐나다에서나마 함께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소명을 받으셔서 창립부터 오늘날까지 오로지 부여받은 소명, 즉 갈수록 혼탁해져 가는 영혼의 세계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혼신을 바쳐 사역하시는 초대 원장님 김창길 목사님과 현 원장님이신 에스더 목사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김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교육 목사님으로 시무하시던 시절, 사춘기 어린 학생으로 처음 뵈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후 목사님께서 뉴저지로 떠나셔서 30년 넘게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수도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기에 다시 뵈게 되었습니다. 뉴저지에 오셔서 교인 30여명 되는 교회를, 나중에 교회가 가까운 곳에 한인 타운이 새로 형성될 정도로 성장시키시기까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30년 넘게 수고하셨던 육체적 땀가(?)인지 여러 알의 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안스러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편히 쉬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서 수도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비전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도원에 처음 발을 딛게된 때는 식구들과 휴가차 뉴욕 지역에 왔다가 목사님께 들려서 인사드리고, 목사님께서 손수 운전하셔서 보여주신 나비박물관 2층의 수도원 경험이었습니다. 그후 여러 동역자, 사역자, 봉사자 분들의 헌신으로 수도원이 현 위치에 (Englewood) 자체 건물 구입후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혜스러웠고 기억이 새로운 순간은 저희 부부가 두 번에 걸쳐 참여한 수련회였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사이였지만 서로 서먹할 겨

를도 없이 첫 시간부터 저희는 웃음과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수도원에서 같이 생활하며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찌릿한 감동의 시간들 -- 가슴 깊은 곳의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었던 순간들, 그래서 지금도 그 분들의 모습(얼굴) 들이 뚜렷이 남아있고 그립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수련회 동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라도 안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에텐 뜰에서 매년 드리는 수도원 창립 기념예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여러 형제 자매 봉사자들과 수도원 청소며 주위 정돈하는 수고는 물론, 김 목사님 내외분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 캐나다(토론토) 왕복 운전길이 지루한 줄 모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멀리서 왔으며 앞다투어 저희를 식당이나 집에 초대하여 푸짐한 식사로 반겨주시고, 돌아가는 길 스낵까지 챙겨주시며 저희를 보내시는 마음들 -- 세상에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수도원에 올때마다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통해 맺어주신 형제/자매애를 몸 속 깊이 경험합니다. 또한, 전날 밤새 일하고 주일이면 수도원 Chapel 에서 에스더 목사님의 인도하에 예배드리는 Filipino 간호사 형제 자매들과 가족처럼 친근해져 그들이 캐나다 방문했을때 저희 집에서 같이 차를 나누며 해후하는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이렇듯 저희에겐 수도원이 Channel of Blessing 입니다.

거리상 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주로 창립기념 예배 때에 와 보곤 하였지만, 올 때마다 주위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수도원 모습이 변화되고 정돈되어 가는 모습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수도원 에텐 가든이 기증받은 정원수와 아담

한 바윗돌들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뒷편 대나무 숲과 기존의 크고 높은 나무들과 조화를 이루고, 뜰 한켠 수도원 박물관에 귀중한 기독교 고품들이 전시되고, 오랜 건물 벽이 산뜻한 siding 으로 거듭나고, 특히 수도원 건물 주위로 김 목사님께서 손수 여러 과일나무와 꽃나무, 화초들을 골라 구입하시어 수도원 방문자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시고 싶은 소중한 염원을 담아 곳곳에 식수, 배치하셔서 갈수록 더할 나위없이 아름다움이 더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수도원에 가면 자연스레 한 줄기 풀이라도 더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도원 에덴 가든 경계로 뜰 밟기가 저에게 안식과 치유의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가 많이 기업(enterprise)-화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 필요에 따라 어쩌면 자연스런 흐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의 프로그램, 운영, 성장에 성과를 내는 학식, 경륜, 재력등이 뒷받침 되는 능력자 우선주의가 보이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의 frontman 들이 되어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겨워 닳고 연약해진 심령들이 파스히 기대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랑방에는 불빛이 약해져가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다 그러려니 하며 묻어 사는데 익숙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개신교 수도원은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달려가서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일이면 가슴으로, 축복하는 일이면 기쁨으로, 상담하는 일이면 진심으로, 애도하는 일이면 아픔으로... 손수 길잡이, 손잡이, 등받이가 되어서 길을 나서심을 보았습니다. 수도원에 오셨던 분들의 배웅하시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떠나시는 차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문밖에 서서 그 분들을 보내심을 보았습니다.

지난 해는 (2025) 제 자신과 김 목사님 또한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미주 지역에 정착한지 50년, 그러니까 성경의 "희년" (Year of Jubilee) 이였습니다. 세월의 뚜렷한 흔적은 없지만, 처음 캐나다에 왔을때 까까머리 어린 학생으로 목사님은 저의 선생님, 부모와 같으셨지만 이젠 같은 노인연금 수령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위 부모 세대들께서 많이들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김 목사님을 건강히 지켜 주셔서 저와 같은 영적 "부양 가족" 들을 양

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Saddle River 산책로를 여느 날처럼 기도하고 명상하며 걸으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며 적어 두었던 몇 줄의 시답잖은 글을 올려드립니다:

Saddle River 어르신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봄부터 진초록 누비 누비 두르고
Saddle River 굽이 굽이 빼곡한 숲속엔
도토리나무 다람이들 분주해지고
채 물들지 않은 나뭇잎 마저도 서둘러 떨구니
새들도 둥지를 떠나야 했나요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벌써 보내기엔 너무 이른가요
오늘 아침도 유리창 뺨에 어린 눈물 방울을
채 다 추스려 훑치지 못하고
가슴 저리며 머뭇거린 자국
또 몇 밤을 지새워야 했나요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까치발 가지 뺨어 Saddle River 물을 덮은 나뭇길
아침결이면 새 소리에 묻힌 그 개울 따라
굽이가는 오솔길을 걸으며
다감한 미소로 인사하는 어르신
그 어르신 발걸음도 재촉했나요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저버린 햇살
어르신은 손수 등불 켜서 길잡이로 나서시고
다가오는 시린 손 덮석 끌어 옷섶에 품으시는
그 어르신 옷깃에는 온기가 흐릅니다
그 어르신 가슴에는 주님이 보입니다

멀리 무서리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그래도 문턱없는 어르신의 둥지는 넓지않아 좋습니다 

토론토대학교 Engineering Science 졸업
Computer Software Engineer (retired)
토론토 디모데교회 EM 장로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3대 이사장 (캐나다 거주)

PAM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우석

수도원 회원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5가지 지침을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 * 매일 아침, 낮, 저녁에 하루 세번 기도 드리기
- *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 * 매일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한가지 실천하기
- * 가정과 학업, 직업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 *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영,육의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삶은 분주함에 나날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두자매에 대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0:39-40) 나와 많은 분들은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 마르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인기를 짧은 지식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울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수북히 쌓여서인지 초록색으로 다가오는 봄 햇살이 어느때보다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이른 아침에는 새들도 기지개를 펴고 노래를 부릅니다. 커피빈을 그라인더에 넣고 가는 소리와 함께 탁탁하고 죽을것 같았던 검게 그을린 커피빈에서 향기로운 커피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이른 아침에 귀한 여유를 줍니다.

커피빈을 보면서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날수 있을까? 어느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그래도 내가 머무는 뉴욕 Cornwall on Hudson 타운에 서의 창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 같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세상 속에서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화와 평안을 느끼게 된 귀한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수도원 금요일 평신도 성경공부반' 이야기~

15년전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시기에 김창길 목사님과 김에스터 원장님의 초대로 매주 평신도 성경공부를 참석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김에스터 원장님과 김창길 목사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짧은 몇주, 몇달의 성경공부가 아닌 체계적이면서 도전적인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말씀시간은 나의 고민도, 기도 제목도, 아픔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어느덧 시간이 2026년까지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미국, 캐나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평신도 형제님들과 말씀과 기도, 찬송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 모두가 감사의 시간입니다.

줌(zoom)

만남 영상으로 말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이 주는 화려함은 없지만 화면 너머로 어떠한 설

교와 말씀보다 뜨겁고 감격스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이 아닌 죄인의 모습, 주님만이 나의 죄와 부패되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 때로는 신앙적 갈등이 눈물이 되어 흐르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줌 화면을 타고 국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제도권 교회가 미처 다 채워 주지 못했던, 삶의 밑바닥에서 피어난 실질적이고 진실한 교제였습니다.

PAM (Protestant Abbey Mission)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평신도 성경공부는 교회당에서 어그러지고 세속적인 또는 권위적인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퇴색되지 않도록 초대해주신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 내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참된 평안으로 수도원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날은 아니지만 한번하는 날은 기진 맥진하는 수도원 봉사의 날 이야기'~

수도원에서 봉사는 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성경말씀이 아닌 잔디깎는 기계와 깨끗한 옷이 아닌 땀과 흙과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과 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고 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은 높은 강단에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스피커가 아닌 "예쁜 빛을 다 바라고 마지막까지도 거름으로 돌려 주려는 수도원 뒷마당의 가을 낙엽더미" 아무도 알아줄 필요도 없으며 내색할 필요도 없는 "오직 주님과



내가 만나는 수도원 가든"에서의 시간은 기쁨과 감사의 "참된 쉼"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어낼 때 내 마음의 찌꺼기도 함께 쓸려 내려갔고 수도원 사모수련회때 정성껏 음식을 정리할때 나와 우리 가정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흙물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가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음으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몇가지 교회에는 있지만 수도원 PAM에는 없는 것을 적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오니 참고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회안에는 권위주의적 분위기(The Generation Gap or There's a strong culture of authority in the church)가 만연합니다. 많은 한인교회가 여전히 유교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소통에 익숙한 1.5세대와 2세대, MZ세대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교회의 권위주의자의 모습의 명령은 설득력을 잃게 되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 "삶"과 "신앙"의 괴리(The inconsistency between belief and practice)로 "참된 빛"과 썩음을 방지해 주는 "소금"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중적인 생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으로 위장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부도덕하고 독선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폐쇄성: 기후변화의 위기(교회에서 작은 실천을 하고도 있지만, 노력도 교육도 안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 젠더 문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음 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 인종차별 (우리도 이민자이면서 식당이나 주위에서 유색인에게 미국인처럼 대하는 가식된 말과 행동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무관심으로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 지나친 헌신 강요와 "번아웃 (Burnout)" 저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의 특성상 한사람이 여러가지의 사역을 감당할때가 있는데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있는 상태에서 번아웃이 오면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일년을 섬기고 봉사를 했으면 다음해는 온전히 예배에는 집중하고 채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수 많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크루즈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요?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의 가르침으로 영적 "항공모함"으로 영적전쟁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 공동체의 폐쇄성과 정죄(The closed nature and judgemental attitude of the community)로 정답을 강요하는 문화와 나와 의견이 다르면 맞다/틀리다 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또는 믿음이 작아서라는 판단과 시선은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쓰다 보니 저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몇가지 적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술선수범해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들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신음하는 자, 갈급한 자, 배고픈 자, 상처와 아픔으로 소외된 자, 간음한 자, 거짓말한 자.." 나 같은 자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죽기까지 다 쏟으신 주님이십니다. 머리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지는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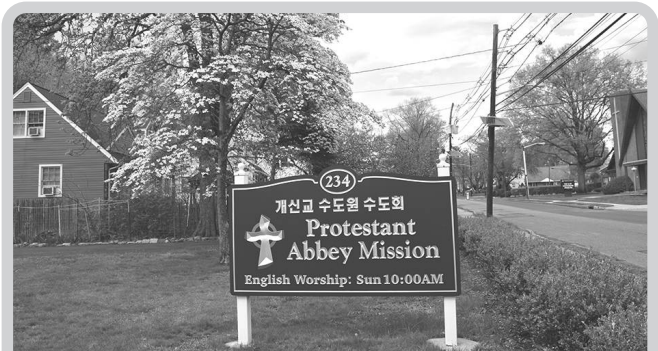
이렇게 이곳 뉴저지 잉글우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주님께서 15년이란 시간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수도원을 이끄시고, 이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과 문제들을 때에 따라 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한평생 주님을 위해 달려가신 두분. 선한 싸움을 하신 김창길 목사님, 김에스더 원장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8명의 소중한 손자, 손녀와 시간을 가지시면서 지내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 * 제5대 수도원 이사장 역임
- * 1998년 1월 미국으로 이민
- * 뉴저지 장로교회 집사
- * 28년동안 Nail Technician 으로 뉴욕 업스테이트 작은 마을에서 Blossom Nail & Spa를 운영함.
- * 수도원 PAM 을 통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사랑하는 아내인 김자영 집사와 대학에 들어가는 아들 예뵘이와 뉴욕 Cornwall on Hudson 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수도원수도회 후원이사장 명단

- | | | |
|---------|----------|---------|
| • 초대이사장 | 정우영 안수집사 | 미국 뉴저지 |
| • 2대이사장 | 이익균 안수집사 | 미국 뉴저지 |
| • 3대이사장 | 박범식장로 | 캐나다 토론토 |
| • 4대이사장 | 김경호 장로 | 한국 서울 |
| • 5대이사장 | 이우석 집사 | 미국 뉴욕 |
| • 6대이사장 | 김경호 장로 | 한국 서울 |

후원이사명단

- 박범식, 김경호, 이우석, 심연옥, Paul Kim, Philip Kim, Esther Kim, Samuel Kim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James Lee (이규수)

나의 인생과 신앙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준것은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또 수도원성경반에서 Esther 목사님하고성경 말씀을 배운 것이다. 성경에 "임마누엘" 단어가 나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믿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

1961년 7월 22일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예방주사를 세브란스 병원에 맞으러 갔다. 그리고 왼쪽 엉덩이에다 맞았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주사를 맞고 왼쪽 다리를 못 써서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었다. 한 3년간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두꺼운 가죽 구두를 안 신고도 걸어다닐수 있었다고 하신다. 그러나 여태까지 조금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반장만하고 다녔다. 그리고 저희 형제의 교육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Fort Lee Intermediate and High School을 나왔다. High School에서는 College 준비를 하기 위해서 Soccer 하고 Track에 participate 했다. 12학년때 축구 경기를 하면서 내가 미끄러지는데 opponent defender가 공을 찬다는게 내 얼굴을 찾다. 오늘쪽 얼굴이 fractured. 13시간을 수술을 했다. 아직도 내 얼굴 안에는 철사들이 있다. 근데 왼쪽 발을 잘못 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구 주전 member에 captain까지 했다.

그리고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했다. 친구들과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3년간 NSA에서 Analyst로 일을 했다. 그러던 하루 병이었다.

내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성경에 Job 정도는 아니였어도 나는 방황하고 해메고 있었다.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잊은채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던 와중 할머니의 소개로 이신경 전도사님을 만나 가정을 꾸미고 두 아들이 출생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고 은혜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때 "믿음이 약한자여"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며 다시 Software Engineering Job들을 찾기 시작했다.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Accenture, AT&T, Verizon Wireless, New York Life 등등에서 일을 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부터 뉴저지장로교회에 가서 김창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나는 유아세례를 받고 국민학교 때 한국에서 교회에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출석을 안하였다. 맨 처음 교회에 나갔을때 한국어를 잘못해서 한국교회에 나가기 싫어했는데 Wife의 Suggestion으로 계속 참석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일주일이 지나면 설교 말씀을 기다려졌다. 1997년 김성인 장로님(그때는 집사님)이 나를 성가대실로 데리고 가서 테너를 하라고 하신다.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5학년까지 Piano 교실을 다녀서 악보 보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Pitch 와 Tone이 힘이들었다. 그러나 연습하는 과정과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것을 더 느꼈다. 부족한 제가 아름다운 Music에 따라 찬양할 수

있다는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시편 145:1-3) 그때 병이 난 이후 친구들과 교제를 멈추었다. 지금도 옛날 친구 몇명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구 친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임재하시는 것도 느끼니 더 좋은 것 같다. 요근래에 와서 차사고도 나고 눈에 피가 터져서 수술도 하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 걱정이 없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6).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자니라" (마태복음 7: 7-12) 오늘 설교의 성경구절이다. 나한테 도전이 되는 구절이었다. 내가 여태까지 간절히 구해 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감사하였다. 근데 이제부터는 간절히 기도할것이다. 내 comfort zone에서 벗어나야한다. 나를 더 개발하고 cultivate 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전파해야겠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경험이다. 이 경험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이경험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였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었다.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1882년 Friedrich Nietzsche가 그의 책에 "god is dead"라고 했다. 근데 나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말씀을 배울수 있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가르쳐주시고 설교해 주신 뉴저지장로교회와 수도원 김창길 목사님과 Esther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ames Rhee (이규수),
뉴저지 장로교회 안수집사, 호산나 찬양대 Member
Data/AI Engineer, 수도원 금요성경반 회원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모임

2015년 초에 김영덕, 정창문, 조인목, 김영호, 이상화, 한진우, 김에스더, 김창길이 시작한 오십대 중견 목회자들의 초교파 모임으로 월1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에 모여서 기독교 교전이나 베스트 셀러를 선정하여 가능한 매월 한권을 읽고 발제자가 요약과 토의제목을 프린트 물로 발표하며 회원들은 선정한 도서를 필히 읽고 와서 토의에 참석한다. 책 구입은 회장의 책임이며 점심접대는 번갈아 가며 한다. 모임 전 경건회를 하는데 기도자와 메시지 전달자가 있는데 가능한 5분이상 메시지를 하지 않도록 한다. 요즘은 공동성경 읽기로 바뀌어 묵상, 나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모임이 진지하며 인격변화와 신학 정립과 강단설교에 도움을 준다.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호 이해하며 피차 배움을 통해 친근해진다. 김창길 목사가 Consultant로 계시다. 현재 UMC, KPCA, 구세군, PCUSA, FG, UPCA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동안 봉사했던 섬김이는

초대 회장	조인목 목사 (KPCA)
총무	한진우 목사
2대 회장	김영호 목사 (KPCA)
총무	조희창 목사 (KPCA)
3대 회장	강신균 목사 (KPCA)
총무	조희창 목사 (KPCA)
4대 회장	고한승 목사 (UMC)
5대 회장	전인숙 목사 (UCC)
6대 회장	최다니엘 사관 (구세군)
7대 회장	남승분 목사 (UPCA)
8대 회장	전진은 목사 (PCUSA)
9대 회장	김상목 목사 (PCUSA)
10대 회장	이정환 목사 (FG)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학자의 길



박명희

인본주의자

저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유교적인 윤리관이 강한 분들이시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데 대해 큰 긍지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착실히 공부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모범생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 문명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 발달되어 간다고 보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제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972년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미래의 과학자로서의 큰 포부를 안고, 미국 Rhode Island주, Providence에 있는 Brown 대학에서 대학원 유학생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운대학원: 연구의 기초 훈련

저의 대학원 지도 교수님 (Dr. Joan E. Lusk)께서는 박사학위 취득과 2-3년의 수련(post-doc) 후에, 바로 브라운 대학 화학과에 조교수로 오신, 언니같이 젊은 분이었습니다. Lusk 박사님은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셔서, 저와의 관계도 무난할 듯 싶었고, 그분의 전공도 제가 원하는 분야, 생화학/미생물학이라, 그분의 대학원 학생이 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처음 유학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 장벽 (영어 회화) 이었고, 의사 소통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두번째 장벽은 자신의 독자적 사고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교육이 주로 주입식이었던 영향으

로, 저는 대학 졸업때까지, 책에 출판된 내용은 무조건 100프로 진리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외워서, 시험보는 공부는 잘 했으나, 과학 교육의 참된 목표, 자신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일에는 낙제생이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제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실험 data를 지도 교수님과 일일이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대학원의 마지막 해에는, 저도 목소리를 높여가며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저를 첫 제자로 아껴 주시고 "I will be proud of you" 라는 예언적인 충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그 분은 미혼으로 일생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자녀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연구원 생활 (1976-1978): 광야

브라운 대학원에서 4년만에 박사과정 (생화학/미생물학)을 끝낸 후, 저는 새 분야, 암 세포 성장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MIT, John M. Buchanan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Post-doc 수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연구실은 큰 group이라, 각 연구원에게 대충의 연구 과제가 주어지고, 각자 독립적으로 실험하여, 결과를 초벌 논문으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과제를 박테리아(대학원)에서 암세포로 바꾼 상태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추진할 훈련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실험을 하여도, 사소한 결실 뿐, 제가 기대한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세상 일이, 반드시 노력에 비례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받은 중요한 단련은, 훗 날, 연구가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오는 좌절을 받아들이는 인내력, 지구력의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독교 진리에 눈뜸

연구 성과의 부진으로, 저의 장래의 꿈이 깨어진 듯 하여,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친구(이영경/김희준 박사 부부)의 권유로, 난생 처음으로 Boston 근교의 교회 (Grace Chapel)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에서 Gordon Macdonald 목사님의 설교 (로마서 12 장 2 절: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그 때까지 전적으로 추구해온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 왔고, 이 새로운 세계를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앙 서적들과, 복음서 주석들을 읽고 공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차츰 알게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과 선포하신 진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첫 애기, 아람이가 태어 났고, 이 새 생명의 출생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그 시기에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으며, 제 영의 눈을 서서히 뜨게 하셔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참으로 완전한 선을 이루신 분이며,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진리를 만나면서, 그분의 거울에 비추어, 저의 죄인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를 괴롭혀온 마음의 고질 병은 세상적인 욕심, 이기심, 자존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아집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깨달음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온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에, 이 고질적인 죄

의 병을 보여 주심으로서 근본적인 치유의 길, 자유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주안에서 시작한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areer

MIT에서 연구 생활의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는 앞날의 career를,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남편이 Maryland 공과대학에 조교수 offer를 받고, 우리 가족은 매릴랜드 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NIH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의료 연구소이며, 병/내장에 따라 구분된 스무 여개(현재 27개)의 개별 연구소로 구성 되어있고, Extramural program을 통해, 미국내 그리고 세계의 대학과 연구소에 방대한 연구비를 보조하며, Intramural program은 천 여명의 Principal Investigator (책임 연구원)들과 그 아래에 Post-doc (연구원)들을 포함약 오천 여명의 과학자들이 의료 문제에 관련된 다방면의 기초 연구와 임상연구를 하며, 또 특정 병에 대한 새로운 시험적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치료를 시도하는 곳입니다. NIH에서의 수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과학자 선배님께 문의하여, NIDR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의 저명한 생화학자, John E. Folk 박사를 소개 받고, Post-doc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Folk 박사는 청교도적인 신념이 강하시고, 원칙주의자이시고, 양심적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고지식하신 분이며, 동시에 인품이 "nicest boss"라는 평판을 듣고, 저는 그분의 연구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서로 신뢰하고 원만한 관계로 일할 수 있는 상관을 선호하였고, Folk 박사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충성 어린 연구원을 선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NIH: 첫 난관을 통해 발견한 연구과제와 열매

저에게 맡겨주신 Folk 박사의 연구 과제는

Transglutaminase 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Polyamine과 결합하는 세포내의 단백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초반실험에서 Polyamine과 결합하는 한 특정 단백질을 찾았으나, 난감하게도 이 미지수의 polyamine-protein 결합반응은 Folk 박사님이 예상하신대로, Transglutaminase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설이 빗나가니, 과제를 첫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던지, 아니면 이 미지수의 반응을 규명해 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초반 실험에서 이반응이 저에게 특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첫째, 세포내의 수많은(10,000 - 15,000) 다른 단백질 중에 오직 하나의 단백질만이 polyamine에 의해 변형된다는 사실, 둘째, 세포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단백질의 변형 중에, 이처럼 한 특정 단백질에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미지의 단백질은 세포성장 속도에 따라서 증가하여서, 이 단백질이 세포/생명체의 성장과 증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미지의 반응의 비밀을 찾아가는 보물 찾기, 탐정게임같은 모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NIH에서 저의 본격적인 연구는, 예상 밖의 미지수 반응의 accidental discovery로 시작되었는데, 후에 두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감추어진 보물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년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 팀은

1) 미지수 반응의 유일한 기질은 세포내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eIF5A 이며, 이 protein의 한 아미노산 (Lysine)에 Polyamine의 일부가 결합하여 Hypusine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짐을 규명하였고

2) 이 기질 protein을 변형하여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새로운 두 단계의 효소 (DHPS and DOHH)를 발견하고 그 효소와 반응 mechanism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세포내의 한 특별한 경로, Hypusine pathway를 발견하였으며

3) 이 경로를 통하여 eIF5Aprotein이 Polyamine에 의해 변형되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 되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4) 또한 이 경로가 세포의 생존, 성장과 증식에 필수적이며, 세포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target도 되므로, 두 효소에 대한 여러가지 inhibitor들을 개발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5) 유전학적 연구 (세계 여러 유전학자들과의 공동 협력 연구)를 통해서, eIF5A나 두 효소(DHPS나 DOHH)의 유전자에 어떠한 특정한 변이 (mutation) 가 있을 때, 인체와 동물에서 희귀한 발달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결과는 백여편의 논문으로 과학지에 출판되었으며, 또한 많은 국내외 국제 학회에서 구두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연구의 열매를 맺은 데는 무엇보다, 초기부터 저의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 별 따기 같은 tenured position으로 승진을 추진해 주신 Folk 박사님, 35년간 저의 연구와 연구실 운영을 위해 헌신을 해 주신 Edith C. Wolff 박사님, 그리고 한국, 미국, 유럽에서 저희 실험실에 오셔서, 헌신해 주신 동료 연구원들의 피땀어린 수고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은퇴 후에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과학의 열매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열매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수십년 연구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과, 유대와 friendship입니다. 저의 career와 성장에 도움을 주신 멘토와 동료분들 중에 "이런 분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철저히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신, 고인, 두 분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Folk 박사님은 이례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신 분으로, 저에게도, 세상에서 인정 받는 일에 신경쓰지 말고, 오로지 순수한 진리 탐구에 몰두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나아가서, Folk 박사님 부부께서는 저를 가족처럼 신뢰하시고, 딸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동료는, 저보다 20년 연상인 Wolff 박사님인데, 그는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고, 외부 사무직 일을 하다가 은퇴하시고, 연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거의 60세가 되어, 저희 연구팀에 합세하셨습니다. 그는 젊은 연구원보다 더 열정적으로 연구를 좋아 했고, 실험실의 엄마로 불리며, 젊은 연구원들을 돌봐 주며, manager로 35년

을 헌신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연구논문에 그분 자신의 authorship을 받아 들이도록 설득하느라 논쟁을 해야 했고, 후반 15년은 월급도 사양하고, 순전히 젊은 과학자를 돕기 위한 봉사자로서, 제 은퇴 준비를 옆에서 끝까지 도와준 충성된 동역자며, 참된 친구였습니다.

하나 되돌아 보면, 저의 연구 여정은, 승승장구로 항상 실험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일이 잘되는 날보다 안되는 날이 많았으며, 불공평한 대우와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으며, 광야에서 길을 잃은 듯,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씨름하며 참고 버티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연구 결과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돌파구가 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쁨과 새 에너지가 솟아서 다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과학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흔히 있으나, 저는 생명과학 연구를 통하여, 파고 들면 들수록 생명체가 우연이 아니라, 한없이 미묘하고 신비한 생명의 세계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학원 교육부터, 은퇴하기까지 제가 연구자로서 걸어온 길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세심히 간

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맞추어, 저에게 필요한 멘토와 상황을 보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의 연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mentor와 동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과 직장의 책임의 무게가 힘에 겹다는 핑계로,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 온 것에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앞으로의 남은 생의 길에서, 저에게 보내 주시는 사람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돕는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972년: B.S.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화학과
1972- 1976: Ph.D.Brown University, Dept of Chemistry,
1976- 1978: Research Associate, Dept of Biolog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9-1989: Visiting Fellow, Staff Fellow, Senior Staff Fellow, NIDR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Research)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1989-2021: Senior Investigator, Chief, Molecular and Cellular Biochemistry Section, NIDCR, NIH

와싱턴한인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reater Washington)권사
주일학교, 속회, 장학위원회에서 봉사,
개신교수도원후원자(*editor 추가)

Bible Class

개신교 수도원 개원부터 성경공부로 시작했다. 지도는 김에스터 목사님으로 사모반, 평신도반이 있으며 지금은 평신도 반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사모반은 사모수련회로 바뀌었다. 지금은 Zoom으로 하는데 NY Upstate, New Jersey, 미주리주, Toronto(Canada)에서 참여 한다. 여성성경반은 매주 목요일 오전 7-8:30시에 진행된다. 남성성경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에 진행된다. 희망자는 김에스터 목사님께 신청하면 된다.

수도원 머물기

병자는 입소를 금한다. 영성훈련을 위해 입소하여 기도와 명상, 말씀 연구와 노동을 할 수 있다. 주로 목사님들과 제직훈련, 신학생 수련, 교수들 (장신대, 숭실대, 코넬대)이 다녀갔으며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식사는 개인이 주변 레스토랑에 가서 해결한다. 기숙사 방 안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물병은 가능하다.



우리말 성경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 4:12)

허영진

한국 최초의 교회는 서울의 새문안 교회로 알려져 있다. 새문안 교회는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 정동에서 창립하였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참석 교인은 모두 14명이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를 준 사람은 그 중 한 명 뿐이었다. 그는 알렌 선교사의 어학선생으로 일하면서 남몰래 신앙서적을 읽는 중 진리를 깨닫고 자원하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노춘경이란 사람이었다. 그 외 13명은 그 이전에 벌써 세례교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줄 알았으나 실은 이미 뿌려진 씨에서 결실한 열매를 거두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새문안 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가 아니다.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황해도 송천에 목회자 없이 평신도끼리 모이는 솔내교회가 있었다. 평북 의주에도 신자들의 신앙공동체가 존재했다.

그래서 교회사가들은 한국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시작한 이른바 자생 교회라고도 말한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첫 신자들은 어떻게 어디서 복음을 받았을까? 그들은 선교사 보다 먼저 성경을 만났다. 그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말 즉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우수한 말과 글을 주시고 또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한글 번역과 보급은 실로 죽어가던 한글을 되살려내고 멸망의 비탈로 내리닫던 한민족을 구원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한문만이 진서라고 숭상하던 모화사상에 젖은 사대부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

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은 오랫동안 세상의 정당한 평가와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세기동안 한글은 천한 백성과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언문이라 하여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한 나머지 거의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짓밟히고 죽어가던 한글이 기사회생활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선교사들이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중의 책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보급한 데 있었던 것이다.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통하여 되살아난 한글은 민족역사의 암흑기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글학자 주시경은 "나라의 땅은 독립의 기(基)요 사람은 독립의 체(體)이며 말은 독립의 성(姓)이다. 땅과 사람이 있어도 말이 없다면 독립도 없다."고 말했다.

유명한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의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노예가 되어도 국어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은 감옥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글은 오늘날 세계가 그 우수성을 인정하는 언어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0년 하바드 대학 언어학과 교과서 "East Asia"에서 저자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교수는 "세상에 현존하는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인 언어는 한글이다." 라고 말했다.

1964년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에 한국학과를 개설한 프리츠 포스(Flits Vos) 교수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을 발명한 민족이다." 라고 말했다.

시카고 대학의 언어학 교수 제임스 맥콜리(James D. McCawley) 는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위대한 한글을 만들게 하셨다."면서 한글날이면 학교 수업 대신에 축하 파

터를 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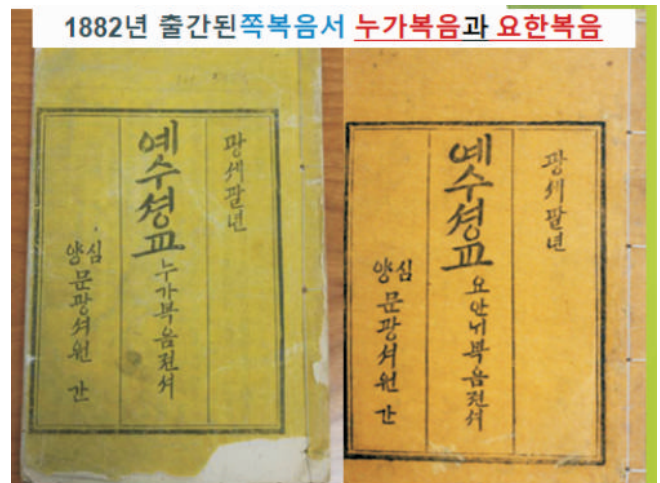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을 세종대왕 문해 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 한글성경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일까?

1870년대 초 우리나라 북쪽 국경지대인 의주지방에서 중국을 드나들며 장사하는 상인들 중에 이응찬이란 사람과 서상륜이란 사람이 있었다. 한약재를 배에 가득 싣고 압록강을 건너던 이응찬이 배가 파선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했다. 처지가 딱해진 그를 선교사 존 로스 목사가 도와주고 한국어 어학선생으로 채용했다.



존 로스 선교사

서상륜은 인삼 장사차 만주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역시 선교사 존 매킨타이어 목사가 치료해주어 살아났다. 두 선교사는 처남 매부 간으로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가 중국 만주에 파송한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에 나섰다가 순교한 사실을 전해 듣고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 로스와 매킨타이어 두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해 한중 국경무역지대인 봉황산 고려문을 찾아갔다. 거기서 많은 조선 사람을 만나는 중에 조선백성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당시의 정세상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응찬과 서상륜에게 한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두 조



선 사람의 친구인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도 불러다가 성경번역에 착수했다. 이 사람들이 성경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회개하여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들이 되었다.

1882년 마침내 우리말로 된 최초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출간되었다. 정식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3년 전의 일이다. 이때부터 서상륜, 백홍준, 이성하 등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경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된 위험한 일이었다. 이성하는 성경 보따리를 객주집에 맡기고 압록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찾았으나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그만 성경을 모두 불태우고 그 재를 압록강에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로스 목사는 "성경 씻은 물 먹은 조선 사람마다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백홍준은 성경을 낱장으로 뜯어 그것으로 노끈을 꼬았다. 그는 성경 노끈으로 폐지 뭉치를 묶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강을 건넜다. 의주의 집에 도착해서는 노끈을 풀어 인두질로 편 다음 본디 모양의 성경책으로 엮어서 읽으며 전도하여 반년 만에 10여명의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다.

서상륜은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한 권서로 알려져 있다. 권서란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혹은 매서인이라고도 했다. 당시 조선정부의 외교 고문이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의 도움으로 성경 6천권을 반입하는 데 성공하자 서상륜은 성경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성경을 반포하고 복음을 전했다. 당시 조선사회의 분위기 미루어 볼 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도사역이었다. 새



백흥준 장로

서상륜 장로

문안 교회 창립보다 3년 전인 1884년에 시작한 황해도 송천의 솔내교회는 서상륜이 설립한 자생 평신도 교회이다. 또 그의 아우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를 목회하였다.

1887년 마침내 신약전서가 완역 출간되었다. "예수성교전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1883년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조선인 선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문성경에 한글로 토를 달아 "현토 한한 신약성서"란 이름으로 출간했고, 다음 해인 1884년에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를 출간했다. 한국 최초의 목사 선교사들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사람은 일본에 들려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발을 내려놓았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룩한 선교역사는 성경번역 사업이 그 출발점이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다. 바울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책" (딤후3:15,16)이라고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고 강조한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상숭배에 떨어지기 쉽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마련해야 한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성경은 갈 수 있다. 선교사를 만나보지 못하고도 성경을

읽고 변화가 일어난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기 때문이다. (히4:12).

알젠티의 어느 산골에 사는 할머니는 자녀 14명을 모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냈다. 교회도 없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지나던 나그네가 주고 간 성경 한권이 그 할머니와 14명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능력이었다.

한 전도인이 복인도 어느 시골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성경을 읽어 주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천년 되었다고 하니가 그가 되물었다. "어느 나쁜 사람이 이 책을 그리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감추어 두는 나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글로 된 성경을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받은 특권적 축복의 주인공인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생각해본다. **ㄹ**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 출간한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

오렌지 영락교회 원로목사 (23년 시무)
멕시코신학교 D.Min.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기독교 교육 M.A.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B.A.
장로회 신학대학교 M. Div.
미주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시카고 기독교일보 칼럼니스트
해외한인장로회 제29대 총회장

구약성경이 있기까지



노순구

구약성경 (the Old Testament)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주후 5세기 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이미 주후 4세기경 당시 기독교가 소위 신약성경 27권을 정경(Canon)으로 사용하면서 신약성경 (the New Testament)을 "새 언약"이고 하면서 주후 5세기에 가서 타낙크를 "옛 언약" 곧 구약성경 (the Old Testamen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자기들의 종교의 표준 경전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그 경전의 이름을 줄곧 "율법, 선지자, 그리고 성문서 (토라,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첫 자들을 모아 타낙크)"라고 부르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구약성경의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서사시 (National Epic)"에서 비롯된다. 민족 서사시가 된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는 핵심이 되면서 동아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그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그 민족 서사시가 기록으로 된 것은 남 왕국에서 기원전 10세기에 그리고 북 왕국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인 기원전 8세기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 왕국이 멸망한 후 그 기록은 남 왕국으로 내려오게 된다. 남 왕국으로 내려온 북 왕국의 기록이 남 왕국의 기록과 기원전 8세기 초 합쳐지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내서를 갖게 된 것은 남 왕국 15대왕 요시아 18년 기원전 621년이다. 그때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힐기야로 하여금 성전 헌금을 사용하여 성전 보수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힐기야는 성전 헌금 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신명기였다. 요시아 왕은 그 신명기 (현재의 신명기의 5-26, 28장에 해당하는 부분)를 나라의 헌법으로 그리고 종교의 표준경전으로 공포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종교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야웨즘,

Yahwism"의 정식 경전의 형식으로 된 구약성경의 시작이다.

이스라엘 민족종교의 확장된 경전작업은 바벨론 유수 이후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유대교의 형성사와 맞물린다. 바벨론 포로생활이 끝난 후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학사 에스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를 가르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사에 관한 규정들과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제사문서가 남북 왕국에서 비롯되고 합쳐진 민족서사시와 합쳐지게 된다. 그리고 완성된 신명기 (이전 신명기가 전체 34장으로 완성됨)가 이 기록들과 합쳐지면서 비로소 모세오경 (Pentateuch 혹은 Torah)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주전 500-400년이다. 이때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 오경과 전기 선지서가 가감을 불허하는 유대교의 경전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주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모세 오경이 당시 코이네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70인역 셉투어진트 (the Septuagint, LXX)가 역사에 등장한다.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은 현존하는 구약성경 번역판 중 가장 오래된 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주전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구약성경 전체가 번역된 70인역은 위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이집트의 바로 톨레미 2세 필라델포스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파견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율법 (모세오경)을 번역했다는 설이 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the Law and the Prophets)라는 명칭으로 불려졌다 (마 22:40, 눅 24:44, 행 13:15 참조). 왜냐하면 아직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으로 되지 않았던 때였고

"모세 5경과 선지서들"만이 표준 경전이었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신약의 책들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주후 40년 이후에도 유대교의 "율법과 선지자"가 사용되었다. 그 사용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었다. 참고로 예수님 승천 이후 20년간은 복음서나 사도들의 서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유대교의 얌니아 종교회의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 바리새파 주도로 90년경 얌니아 (현재 이스라엘 야브네)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성전 없는 유대교를 재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최종적인 24권 목록을 확정하여 유대교의 정경(正經)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결정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 종교회의의 목표 중 하나는 당시 초대 기독교가 복음서와 사도들의 사신들을 타나크와 동일한 수준의 경전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타나크 24권만이 인정된 정경 (케논, Canon)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타나크 24권은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성서 39권과 동일하다 (단지 권수가 24권으로 된 것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느헤미야, 그리고 12소 선지서가 각각 1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얌니아 종교회의 이후 타나크의 보존과 연구활동은 랍비 아키바 (아키바 벤 요셉)에 의해 주후 132년까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한 그의 처형으로 인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주후 132년은 제3차 유대-로마 전쟁 혹은 일명 바르 코크바의 난이 일어난 해이며 이 전쟁은 4년간 지속되다 주후 135년에 끝났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2000년 디아스포라로 나라와 영토를 잃는 민족이 되었다. 당시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스라엘 영토를 역사적 적국의 이름인 "팔레스틴"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엘리아 카피탈리나 (Aelia Capitolina)"으로 개명해버리면서 유대인의 흔적을 그들의 영토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정경으로서 타나크를 연구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주후 2세기부터 5세기까지 랍비들의 활동으로 부활되었다. 그들은 타나크와 더불어 모세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승된 구전 율법을 연구하면서 정리하게 된다. 타나크 연구는 미드라쉬 (율법 연구는 아가다 미드라쉬,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할라카 미드라쉬)로 정리했다. 또한 구전 율법의 수집과 연구는 미쉬나로 정리되었고 미쉬나에 대한 해석과 분류는 게바라라고 했으며 부록을 토셉타라고 했다. 그리고 미쉬나, 게바라, 그리고 토셉타를 한 대 묶어 탈무드라고 불렀다.

주후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팔레스틴과 바벨론에서 일어난 맛소라 학파 (Masorah School)의 활동은 오늘의 타나크의 보존과 결정에 대단히 중요할 공헌을 했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잘 보존되고 결정된 타나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맛소라 학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없던 모음 표시법을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단어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문에 대한 후대의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평장치 (Apparatus)까지 개발했다. 맛소라 학파들 가운데 팔레스틴의 타이베리아 맛소라 (Tiberian Masorah)의 벤 아론 벤 모세 벤 아셰르 (Ben Aaron Ben Moshe Ben Asher) 가문의 공헌은 두 개의 타나크 코텍스 사본으로 남아 있다: 알렘포 코텍스 사본과 레닌그라드 코텍스 사본. 그런데 알렘포 사본은 시리아 내전 때 상당 부분이 불에 타서 불완전한 상태이고 그 대신 레닌그라드 코텍스 사본이 인쇄까지 되어 현재 남아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나크들을 종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후 4세기에 성 제롬이 히브리어 타나크와 코이네 그리스어로 된 셉투어지트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가 수많은 개정을 거친 가운데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되고 있다. (2) 동방 정교회에서는 주전 2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히브리어 타나크에서 코이네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고 역시 수많은 개정을 거친 70역인 셉투어지트 (the Septuagint, LXX)를 사용하고 있다. (3) 유대교에서는 맛소라 사본인 히브리어로 된 레닌그라드 코텍스 사본이 15세기에 인쇄된 후 지금까지 타나크 (Torah Lebiim and Kethubim)라고 부르면서 경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4)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기반으로 사용하여 영어와 독일어를 기점으로 여러 나라말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개신교 (Christianity)에서 사용되고 있다. **12**

Rev. Dr. David Ro (노순구 목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B.Th. 연세대학교 연신원 Th.M.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Ph.D.
미남침례회 한인총회 총회장
수도원 원로성직자회 9대 회장

수도원과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



김상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7f)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불의와 부패를 청결하게 하셨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기관은 교회와 수도원일 것이다. 수도원은 종교개혁 시대와 18세기의 시민 혁명의 시대에는 많은 수도원들이 강제로 해체당하거나 스스로 해산하는 몰락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개혁이 되어 수도원이 다시 일어서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수도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수도원은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나 그 세력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거룩함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삶의 양식이 곧 수도사의 삶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로마 제국에서 313년의 콘스탄티우스(Constantinus) 황제의 밀란 칙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의 신앙이 아니었으며 대중적 인기와 함께 부와 권력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와 순교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으나 그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출세와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 세속을 떠나 광야로 가서 금욕적인 은둔생활을 했다. 초기에 수도사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광야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대저택이 수도원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4세기 말에 이미 수도사들의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선교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사의 생활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고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수도원은 수도사적 삶을 살기 위한 장소인 동시에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고, 교회의 문화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한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는 곧 성직자이었으며, 성직자가 개인 소유를 포기하는 서원만 하면 수도사가 될 수가 있었다. 수도원의 발전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트(Benedict of Nursia)는 큰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의 규칙서는 수도사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베네딕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에게 영적독서를 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일(opus Dei)"이라 불렀다. 베네딕트는 수도생활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활"이라고 정의 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배움터를 설립해야만 한다"고 하며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르는 좁은 길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달콤함으로 채워질 것이다"고 하였다. 수도사들에게 수도원은 세상의 변방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부"로 여겨진다. 수도원은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하실 수 있는 자리이다. 수도원은 세상을 떠나서 관계를 끊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Augustinus von Hippo, 354-430)은 "수도원 안에서의 생활은 바깥 세상에서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밑바탕일 뿐이다"고 하였다고 한다. 수도원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었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으며, 또 독자적으로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수도원의 활동은 하나님께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것으로 기도의 영성과 직접 관련된 침묵, 기도, 예배, 공동생활, 섬김의 노동 등이 있다. 수도원의 생활은 침묵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은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며, 하나님의 힘에 내맡기도록 한다. 수도원의 저녁기도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한밤의 침묵은 절대로 준수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며 수도원은 완전히 적막에 잠긴다고 한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수도원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예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배정하였다. 수도사들은 한밤중에는 시작기도(Matins), 아주 이른 새벽에는 찬미기도(Lauds), 동틀 녘에는 새벽기도(Prime), 그 후 약 두 시간 뒤에는 오전기도(Terce), 정오경에는 정오기도(Sext), 오후에는 오후기도(None), 초저녁에는 저녁기도(Vespers), 그 얼마 뒤에는 마감기도(Compline)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하루에 8번의 예배를 드렸다. 수도원의 삶은 단순하고 금욕적일뿐 아니라 자급자족을 실현하였다. 모든 것이 수도원의 담장 안쪽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사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도 하고 짐승도 길렀다. 수도원은 병들고 약한 형제들에게도 적절한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너무 무거운 일을 맡겨서 그들의 육체를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육체 노동은 꼭 해야 하는 의무였으나 그 목적은 자신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얻는 수단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수도원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정성스럽게 맞이하여 손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맞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수도원이 발전하며 의식과 관련된 활동과 공동체를 위한 노동이 반복되어 개인의 영적 발전을 위한 공간이나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공간이 없어 고독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독립하여 고독하게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기 위하여 홀로 생활하는 많은 은수자들이 있었다. 수도원에 머무르든 은수자가 되었던 수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의 핵심은 기도와 묵상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었을까? 종교개혁이후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기도는 대부분 자신의 소원을 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원의 기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그들은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는데, 그 방법들은 수도원에 따라서 예수 기도(Jesus prayer), 구심 기도(Centering prayer),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방법은 조금씩 다를 지라도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린 요한복음 17장(21,22)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뜻이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매우 신비스럽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의 하나됨이다.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나 그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하나이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 당하는 과정이다.

Lectio Divina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Lectio Divina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몇 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을 때, 'Back to the Bible'의 구호가 있었는데, Lectio Divina 없이 어떻게 성경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수도원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웠던 모임이다. 수도원에서 행했던 기도와 묵상은 구원의 신앙을 지켜왔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 기도들 - 예수기도, 구심기도,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 렉시오 디비나 - 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나가기를 원한다. ■

* 현재 뉴저지 청지기 교회 목사

*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Program의 Korean cohort의 책임자

* 개신교 수도원 렉시오 디비나 9대 회장

거룩한 두려움의 순간들(누미노제)



박수호

유방암 수술 이후 아내에게 섬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한국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했다. 아내는 2주 정도 시간을 내어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다녀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것 같아,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음식이 문제였다. 결국 음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크루즈 여행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이들만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더니 나도 함께 가자고 해서 동행하게 되었다. 직장 때문에 큰아들은 함께 하지 못했고, 둘째는 대학생이라 봄방학에 맞추고, 막내딸은 일주일 학교를 빠지고 그렇게 지난주 4박 5일 동안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위해 새벽 5시 30분에 집에서 공항으로 출발해야 했다. 젊은 전도사님이 자원해서 공항까지 태워 주겠다고 했다. 아침 5시 30분쯤 집에 오셔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사모님, 이번 여행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인즉, 전도사님이 알람을 맞춰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고, 전화가 와도 울리지 않도록 설정해 둔 것도 풀지 않은 채 잠을 잤다고 한다. 그런데 꿈속에서 전도사님 사모님이 나타나 "지금 목사님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는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니 너무나 혼잡하여 차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선착장을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여행 내내 그렇게 고요하고 맑은 날씨였는데, 참으로 날씨가 우리를 도

와준 셈이다. 공항에는 전도사님이 또 마중을 나오셨다. 전도사님이 사모님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한다.

금요일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고, 주일 맨해튼 예배가 끝난 후 찬양 장비들을 챙기는데 작은 가방 세개 중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왜 가방 하나가 없느냐고 했더니, 차 트렁크에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한 찬양 장비를 직접 챙기기 때문이다. 큰 키보드와 키보드 스탠드는 한 형제 가정에서 챙기지만, 보면대와 각종 스탠드를 넣은 무겁고 긴 검은 가방, 여러 케이블이 들어 있는 큰 파란 플라스틱 가방, 매주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 용품과 헌금봉투, 헌금함을 넣은 녹색 플라스틱 가방, 믹서를 넣은 작은 검은 가방, 마이크들을 넣은 작은 검은 가방, 그리고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장비가 들어 있는 작은 회색 가방은 항상 내가 챙겼다.

이 장비들을 챙기는 시간은 나에게 참으로 거룩한 시간이다. 예배 때마다 장비를 운반하며 야전하듯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시간이다. 이 나이까지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장비 하나하나를 차에 실을 때마다 경외심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가방 하나를 빠뜨렸을 리 없다고 청년들에게 장담했다. 다만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덧붙이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차 트렁크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내가 가지고 오지 않은 그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지?" 믹서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모르고 있었으나, 그 주일이 바로 새로운 믹서를 사서 처음 사용하는 날이었다. 집에 와서 그 가방을 찾아보니 평소와 다른 곳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제야

지난번 장비를 내릴 때 그 가방만은 좀 더 안전한 곳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옮겨 두었던 것이 기억났다. 평소와 달리 여행을 마치고 주일 아침에 허둥지둥 장비를 챙기느라, 늘 두던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겼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나의 실수였다. 그런데 내가 실수로 믹서 가방을 챙기지 않았던 바로 그날이 새로운 믹서를 사용하는 날이었다니, 하나님께서 그 때까지 아셨단 말인가. 내가 실수할 것까지도 아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지금도 주일이 지난 월요일,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은 3월 16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어머니는 만 90세 생신을 지나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

수요일 아침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쓰러지셨고 가까운 B병원 응급실로 가셨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병원에서는 오후 늦게 평소 치료를 받으시던 S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셨고 마지막으로 가능했던 대화는 이 말이었다. "어머니 장례는 S교회에서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간신히 어눌한 발음으로 "할렐루야" 라고 하셨다.

사실 수요일 아침 싱가포르에서 온 조카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신 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침대에 눕히면서 구급차를 불렀다. 나중에 아는 의사에게 들으니 그때는 설탕물만 조금 드셨어도 회복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가까운 B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B병원에 있는 동안 S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신 것을 모르고 전날 검사 결과를 보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했다. 결국 S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 날 목요일 집으로 돌아오셨고 미국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동생이 도착한 주일 오후 숨을 거두셨다. 돌이켜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화요일에 어머니가 가시길 좋아하시던
기능의학원에 가셨더라면,
수요일 아침 내가 조카와 이야기하는 데

빠져 있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때라도 설탕물을 드게시켰더라면...

그 어느 한 가지만 달랐어도 어머니께서 조금 더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기회들이 마치 나를 비롯듯 하나씩 비껴갔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가 vital을 보면 1년은 더 사실 것 같더라는 그 말을 한편으로 믿었던 것 같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최고의 의사라고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아무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정성껏 돌본다고 해도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의 생명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일까. **ㅅ**



고엘교회 담임목사
수도원 렉시오 디비나 Class 회원
서울대학교 문리대 물리학과 (B.S.)
총신대신학대학원 (M. Div.)
Southern Baptist Seminary Ph.D. Candidate

연길에서 얻은 내 자식들 - 지도 학생



유숙자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던 내가 정년퇴직을 바라보며 세계기독간호재단의 이송희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연길에 간호대학을 세우니 가서 간호대학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2년만 있으면 퇴직을 하니 그후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2001년에 뽑은 간호학부 1회 학생들이 한국으로 실습을 나오게 되어 1회부터 5회까지 학생들의 임상실습 지도교수 역할을 맡게 되어 정년 이듬해(2007년)에 연길로 가게 되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이하 연변과기대)에 가서 몇년 동안은 학부장 일로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다. 나선식, 국제심포지엄 등 년례 행사도 많았고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교육 이외에 연길의 지역사회 간호사들을 위하여 건강교육원을 설립하여 고급간호과정, 호스피스간호과정, 임상실무영어과정 등을 개설하여 정말 하루가 너무 짧았다. 완전히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살았다.

연길에 간 뒤 3년 되는해 2010년 새 학기부터는 나도 지도 학생들을 맡아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명의 학생을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나의 첫 자식이 되었다. 다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자식 사랑하드시 돌보는 것을 그동안 보아 왔기에 나도 그분들 처럼 학생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친하게 되었다. 그곳 학생들의 특징은 대부분 부모들이 한국이나 외지에 돈을 벌러 나가 부모 부재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움, 자존감 저하 등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후 해마다 2~3명의 학생들을 받아 모두 10명의 지도 학생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배 아프지 않고 얻은 자식들과 같았다.

일주일에 공식적으로는 1번씩 만나는 것으로 하였지만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마다 더 자주 만나 그들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도 가졌다.

학생들을 만날 때는 가능하면 학년별로 요일을 정해 따로 만났다. 주로 우리 집에서 방과 후 저녁을 먹으면서 만남이 시작되고 식사 후면 더 중요한 대화의 시간과 성경공부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수이면서 엄마 역할을 해야 했다. 학업문제, 이성 교제문제, 가정의 어려움, 심지어 부모님들의 부부 싸움까지 중재해야 되는 때도 있었다.

처음엔 내가 저녁을 준비해서 먹었으나 얼마 지나서부터 그 애들이 집을 떠난지 오래 되었고 또 집에 있을 때에도 음식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우리는 미리 메뉴를 함께 짜고 음식재료들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그날 그날 집에 와서 처음부터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지지고, 볶고, 튀기며 요리실습을 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그 일을 너무 즐거워하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쁨이 매우 컸다. 처음엔 식후 설거지를 학생들이 돌아가며 하였으나 다음 말씀 나누는 시간을 아껴 주기 위해 남편이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해주었다. 넘 감사했다.

우리는 학년별로 박 00교수가 교수들의 영성을 지도해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쉬운 교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읽고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진도가 학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소그룹일 수록 말씀 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았다. 내 학생 중에는 공산당 고위 간부의 딸도 있어 그 학생은 자신이 성경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식사만 같이하고 그 후 시간은 자유에 맡겼으나 잘 어울려 지냈다.

주일엔 예배 후에 북카페에서 다 함께 만나 점심을 같이 하고 연길 시내에 있는 Y교회 청년부에 선 후배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 철엔 모아산 등산도 함께 하며 가까운 야외에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2015년 우리 학교는 정년이 없는 학교라 하였지만 중국의 법에 따라 65세 이상되는 교수들을 다 나가라 하여 본의 아니게 연길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 졸업하는 학생들과 학사 까운을 입고 조각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후배 제자들도 우리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 넉넉히 까운을 빌려 모두 학사 까운을 입고 미리 졸업사진들을 찍었다.

한국에 와서도 학생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찾아 위로해 주었으며 심지어 내 지도 학생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한국에서 일하시다 갑자기 쓰러져 결국 이 세상을 떠난 슬픈 일도 있어 찾아가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 나는 매해 여름 방학이면 계절 학기 강의를 핑계로 연변과기대를 방문하였으며 2019년까지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2019년 폐교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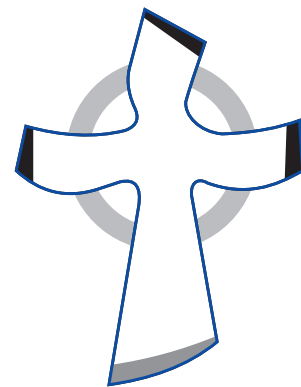
덕분에 매해 연길에 남아 있는 지도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결혼하여 예쁜 공주, 잘 생긴 왕자님을 낳은 엄마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 그 중 한국에 나와 잘 지내고 있는 K학생의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한다. 우리 간호학부는 입학 지망생이 항상 미달 되어 2009년부터 조선족이 많이 있는 고중(고등학교)을 방문하여 간호학부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중 용정에 있는 고중을 방문 했을 때 교감선생님이 착실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책도 많이 읽는 학생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대학을 갈 형편이 못되니 우리 학부에서 장학금을 주면 보낼 수 있겠다고 간청을 하기에 무조건 보내

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 일을 놓고 먼저 기도 드리고 방학에 한국에 나와 옛부터 친하게 지내던 고교 친구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하고 후원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믿음 좋은 그 권사 친구는 K양의 입학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매 학기 등록금, 기숙사비, 약간의 매달 용돈까지 넉넉하게 장학금을 주어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린다. 방학때면 한국에 나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알바를 하여 임상실습 나갈 때 쓸 용돈도 벌고 우리 딸과는 언니 동생하면서 한 식구처럼 잘 지냈다.

졸업 후 한국에 나와 한국 간호사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간호사로 근무 잘하고 있으며 좋은 신랑을 얻어 주례도 우리 남편 이교수가 해주어 지금은 딸,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다. 남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 온 식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연길과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제자들 늘 보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몇년 전까지 윗챗을 통해 소통을 했었는데 내가 전화기를 바꾸고 나서 윗챗을 개통하지 못해 소통이 끊어졌다. 중국이 기독교 탄압이 심하다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내 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빈다. 



서소문교회 은퇴권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전 연변과기대 간호학부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Ph.D.
서울대학교 간호학과(B.N.)
세계기독교간호대학 재단이사

더 나눔 하우스 이야기... 벼랑 끝에서 피어나는 복음



박성원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나눔하우스(The Nanoom House)는 지치고 소외된 한인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심는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배와 말씀 통독, 찬양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며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지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더 나눔 하우스가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고령화, 실직, 가정의 붕괴, 육체적·정신적 질병, 그리고 다양한 중독으로 인해 삶의 쓰나미를 맞은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단지 "이 삶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뿐일 때가 많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피할 수 없는 더위와 추위, 배고픔, 인종차별과 중오 범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더나눔하우스는 이들이 노숙인이 되기까지 겪었을 외로움과 서러움, 회한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깊이 공감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사랑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류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뉴욕, 빛 아래 가려진 또 다른 세계

맨해튼의 밤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벤치 위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지하철을 떠돌며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삶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더 나눔 하우스에서 시작된 기적들

거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고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가 더 나눔 하우스에 들어 오게 되었고 복음을 들으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쉼터를 청소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붙잡힌 생명

또 한 형제는 모든 것을 잃고 조지워싱턴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삶을 끝내려던 순간, "정말 이렇게 끝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눔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회복

또 다른 형제는 모든 것을 잃고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는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며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보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겨울 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거리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더나눔하우스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하루를 꿈꾸고, 재활에 성공하여 사회로 돌아가며, 자립하여 받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식사와 미용, 의료로 섬기는 분들, 그리고 헌신된 스테프와 동역자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성공한 사역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P

현 더나눔하우스 대표
뉴욕풍성한교회 담임 목사
송실대 졸업
총신대신학대학원 졸업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졸업
현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동문회장
총신대신학대학원 전 동문회장
송실대 뉴욕동문회장
미주송실대동문회 이사장

PAM Chapel (개신교수도원교회)

처음에는 필리핀 간호사 부부를 위한 매주 성경공부를 진행하다가 자체건물 구입 후, 2016년 1월 10일 영어예배로 전환하다. 에스더 원장님이 설교와 상담, 결혼주례, 장례주례, 아기세례를 베풀었다. 지금까지 수도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16명이다. 수도원 교회 담임 목사는 김 에스더 목사이다. 매주일 오전 10시에 정기 예배가 있고 예배 후 윤번제 친교 식사를 나누고 수도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한다. 매년 PA에 있는 Sight & Sound Theater에 가서 단체로 Biblical Musical을 관람하고 식사하며 배운 것을 나누며 토론한다.



일상 속 영성, 14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정인식

"목사님! 저희 젊은 목사님들의 목회 나눔 그룹이 있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Englewood 나비박물관에서 Bulk Mail Sorting을 돕고 있던 제게,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건네신 이 한마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던 김창길 목사님. 이제 막 담임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에게 따뜻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그리고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음성으로 건네신 그 초대가 어느덧 14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영적 여정 속에서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Protestant Abbey Mission)가 걸어온 이 14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이 공동체가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김창길 목사님께서 창립하신 이 수도회는 가톨릭 수도원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청빈과 독신, 순명의 영성을 개신교 신앙 안에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 훈련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의 기도와 성경 묵상,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천. 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목표는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저에게 Super Vision이라는 40대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은 단순한 친교의 자리를 넘어서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창길 목사님과 에스더 목사님의 깊이 있는 목회 카운슬링을 통해 저는 목회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들, 때로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아픔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었던, 안전하고도 진실한 공간이었습니다.

40대 목회자로 살아가며 저는 종종 이중의 압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는 자각이 있습니다. Super Vision 모임은 바로 이 긴장 속에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카운슬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도록 이끄는 깊은 영적 동행이었습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한다"는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의 모토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회는 강단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도회가 추구하는 영성은 바로 그 일상성 안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되었을까요. 저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Super Vision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와 배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의 어려운 순간마다 두 분 목사님과 동료 목회자들과 나누었던 기도와 대화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그 진솔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15주년을 맞아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가 앞으로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 속 영성 훈련의 귀한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창길 목사님과 에스더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Super Vision에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14년의 여정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5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M. 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n.)
EZER Ministry 대표
개신교 수도원 페스토랄 수퍼비존 제 3대 회장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 목회의 새로운 과제



하늘

AI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맡기시며 "다스리라"(창 1:28)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의미이다.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파괴적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내는 통제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혼돈 위에 임할 때 질서가 회복된다는 표징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적 권세이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만물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분별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유 역시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그 땅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와 왜곡된 문화, 곧 어둠의 권세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일종의 '영적 방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만들어낸 AI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AI를 분별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에 의해 사고하고 결정하며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

이 책임 있게 AI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AI를 정탐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을 정탐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시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보았고, 그 순간 약속의 땅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민 13-14장).

오늘날 AI를 대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AI는 아낙 자손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AI는 결코 초월적 존재가 아니며,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인이 될 수도 없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tool)'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못을 박기 위해 망치가 필요하듯, 글을 쓰기 위해 연필이 필요하듯, AI는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도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거부부터 한다면, 그것은 정복을 위한 올바른 정탐꾼의 태도라 할 수 없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메뚜기의 시선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시선으로 AI를 정탐해야 한다. 실제적인 기능, 한계,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부터 내리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알고 분별하라.

AI를 길들여라(Grooming)

AI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목적에 맞게 훈련하고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루밍(grooming)'이란 조작이나 왜곡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입력하여 AI가 도구로서 바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AI는 사용자의 질문과 명령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력, 수정, 피드백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는 기술을 신격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구를 도구답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자세이다.

명확한 목적과 기준 없이 사용하는 AI는 오히려 사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지침 아래에서 훈련된 AI는 목회 현장에서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를 지혜롭게 활용하라

AI가 가장 탁월한 영역 중 하나는 지식 처리와 교육 자료 생성이다. 특히 생성 속도와 수행 능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실제로 일반 학교 교사가 AI를 활용해 수업 자료와 교재를 준비할 경우, 연간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설교와 목양이라는 본질적인 사역을 제외한 행정 업무, 데이터 및 재정 관리, 문서 작성, 디자인, 영상 제작과 홍보 등은 AI를 '목회 비서' 혹은 '간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미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여러 특화된 AI를 결합해 사용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AI' 방식을 통해 행정과 시스템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목회자 개인에게도 AI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경 언어 자료, 신학 논문 검색, 번역, 예화 및 역사적 사실 검증 등 기존에 10시간 이상 걸리던 작업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은 더 깊은 묵상과 기도, 성도 돌봄과 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서도 AI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수준 높은 어린이 e북 전도지, 말쑥 쇼츠 영상, 성경 이야기 콘텐츠, 캐릭터 제작 등은 이미 충

분히 활용 가능한 영역이다. 이는 과거 색종이와 가위, 풀을 사용해 교육 자료를 만들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의 도구 활용일 뿐이다.

AI의 사용 지침을 숙지하라

AI 시대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I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깊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태블릿으로 설교문을 보며, 온라인 예배와 생방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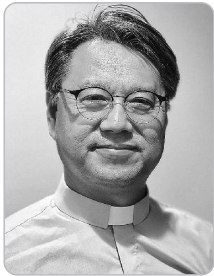
그렇기에 명확한 사용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침은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AI의 사용 방법뿐 아니라,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영적 기준을 성경적 관점에서 정하고 그 지침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30-40대 젊은 가정의 자녀 세대는 AI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객이 전도되듯, 도구가 주인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담당 사역자들과 부모 세대는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침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

AI는 결코 성령의 조명이거나 말씀 묵상, 영적 분별을 대신할 수 없다. AI는 계시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준비를 돕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이 도구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정복하고 통제하여 사용한다면, AI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확장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



시온성교회 담임목사
C&MA한인총회 Church Planting Director
ATI신학교 행정처장
수도원 Super Vision Class의 11대 회장

어디서라도 충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성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귀중한 말씀인 듯합니다.

각종 질병과 질환의 대다수의 영향은 '스트레스' 라고 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능력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지킨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목회자를 포함해 온갖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매일 매순간마다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심리, 혹은 정신의학적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받은 온갖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로 오늘날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반드시 어디선가는 충전 받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매순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충전의 순간들이 없으면 탈진하고 소진되어 모든 것을 잃거나 놓게 됩니다. 조용한 곳, 일상에서 벗어나 캠프나 기도원, 혹은 리트릿센터에서의 시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재충전되기에 큰 도움을 얻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캠프 화이어를 통해 불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명이나 물 명을 좋아합니다. 마치 낚시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래도록 혹은 며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나절, 혹은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은 에너지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수도원에서의 묵상기도 시간도 그러한 의미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군중 속에서 힘을 얻는 이들이 있고, 홀로 있어 힘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

향이나 기질의 차이라는 것을 이제는 상담과 심리학을 배워 충분히 알려진 정보들이지만, 서로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개신교수도원'에서 한 달에 한번 젊은 목회자들의 목회나눔과 멘토링의 시간을 "슈퍼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충전이 되고, 귀중한 목회적 경험담과 실수, 아픔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충전의 이유와 능력이 됩니다. 멀리 롱아일랜드에서 대략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가 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 이야기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지를 대나무 숲이 바로 이 수도원에서 슈퍼비전 만남입니다. 거리와 시간의 가치보다 행복하게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모임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값지다는 것이 몇 년 동안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계속됩니다.

쉬이 필요합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충전이 필요합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충전 방법이 있겠지만,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 보십시오. 잠시 쉬어가는 것이 멀리 사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겠지만,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타임에서는 후회할 일로 다가올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탈진과 소진의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충전 되는 귀중한 시간들을 꼭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뉴욕 새하늘 감리교회 담임목사,
수도원 슈퍼비전 7대 회장 (2020)

수도원 1박 2일 기도 체험기



김영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곳곳이 살아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감당이 되질않았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방법을, 경우의 수들을 상상하며 나락 끝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정리하려면 내 삶의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여자 혼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할 수있는 기도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궁리끝에 (김목사님 내외분께 걱정을 끼치는것 같아 송구스럽기는 했지만) 개신교수도원(PAM)에서 1박 금식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락해 주셨습니다.

수도원의 3층 작고 아늑한 기도실.

지난 10여년 수도원성경공부로, 수도원의 크고 작은행사로 수도원 방문은 잦았지만 이 기도실은 고작 두번째라는것이 조금은 민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있는것 다해보고 진흙탕 흙투성이, 여기 저기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떼쓰러 오는곳...

내가 부를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내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때, 주님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시편 4:1

주님의 재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 놓고 불이 내려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5:3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억울함, 노여움, 두려움을 줄줄이 끝도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묵묵부답, 듣고 계시지 않으신 것인지, 어이없어 한심해 하시는 것인지, 점점 민망해지고 초조해져 왔습니다. 탈진된 상태로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온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다시 무릎 꿇어 보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찬송가를 펼쳐 읊조렸습니다.

마음의 요동이 잦아들었습니다.

기도 노트를 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러 왔는지 한줄 한줄 적어봅니다. 그리고 시편을 또박 또박 곱씹으며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169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힘을 주셨으며 내가 원하는대로 고난 중에 담대히 위풍당당 서게 하지는 않으셨으나 요동하면서도 실족치 않고 버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작 1박 2일의 기도의 힘으로 2년을 버티었으니 한도가 초과되어 다시 위태 위태한 나날을 보내며 주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요즈음입니다. 늘 목말라 하면서도 시간에 쫓겨 미루었던 1박 2일 금식기도로 다시 재충전해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로, 그리고 흘러가는 생명으로



정현숙

1993년, 저는 뉴저지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채, 어느새 외로움이 제 일상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는 보이지 않게 쌓여갔고, 결국 몸의 연약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약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삶은 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마음은 지쳐갔고, 예배의 자리조차 멀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홀로 걸어가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김에스터 목사님(당시 사모님)의 권유로 젊은 엄마들의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제 메마른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굳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지쳐 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말라 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안에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불만과 판단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부족

함을 품고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큰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말씀을 배우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머물며,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복의 길이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뉴저지에서의 4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미주리주 St. Louis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그곳에서 받았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흔적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된 삶 속에서도, 그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김에스터 목사님과 연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Zoom을 통해 여성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끊어진 줄 알았던 영적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새벽, 이곳 시간으로 3시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붙들어 주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성경공부를 통해 만난 하나님과 김에스터 목사님을 통해 받은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Q.T 여성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인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며, 웃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전에 제 영혼을 살리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민 초기의 광야와 같았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제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흘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심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에스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2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1993년 재미교포 신학과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 뉴저지를 거쳐 1997년 세인트루이스로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현재 Mercy Rehabilitation Hospital에서 RN으로 일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이스 제일장로교회에서 큐티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수도원성경반 회원.

Pastoral Supervision 모임

2014년에 30대 40대 담임 목사들이 모여 이민목회의 문제와 갈등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며 여기서 이야기된 일은 사모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가입한다. 아직까지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때론 선배 목회자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경우에 따라 도서를 설정하여 발표한 후 토의를한다. 우리 모임은 첫 번째 경건회로 찬송과 기도 그리고 5분 메세지의 설교로 이뤄진다. 때론 종교단체를 견학하기도 한다. 모임의 supervisor는 김창길 목사이며 현장목회에서 이슈에 대해 매번 그의 목회 경험담과 방향 제시로 멘토링을 해준다.



그동안 우리 모임을 섬겨주신 섬김이는

초대 회장	고창주 목사(예수사랑교회)	KPCA	2014년도
2대 회장	김영철 목사(이레교회)	KPCA	2015년도
3대 회장	정인식 목사(선한이웃교회)	KMC	2016년도
4대 회장	김성환 목사(한생명교회)	KPCA	2017년도
5대 회장	한성윤 목사(주섬김교회)	KPCA	2018년도
6대 회장	권기현 목사(Giving Church)	ECO	2019년도
7대 회장	임성균 목사(새하늘교회)	KMC	2020년도
8대 회장	조유환 목사(선한말씀교회)	KPCA	2021년도
9대 회장	박동은 목사(빛된교회)	KPCA	2022년도
10대 회장	고범석 목사(주섬김교회)	KPCA	2023년도
11대 회장	하 늘 목사(시온성교회)	C&MA	2024년도
12대 회장	인성재 목사(새하늘교회)	KMC	2025년도

Mythyl's Testimony



Mythyl Love Go

In my twenties I made many plans and I thought I had it all figured out. Unfortunately, many of those plans failed. Then the Lord spoke through the Bible, I read Proverbs 16:9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I found comfort in those words and I still do. His plans always lead me to a good path, and I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he is in control. Through His leading I came here to the US. It's been 14 years since then; I am forever thankful that I answered God's calling when a friend invited me to join a bible study. That's when I met Pastor Esther and Pastor Sam Kim. From weekly bible study in World of Wings in Teaneck, NJ led to becoming part of Protestant Abbey Chapel and joining the Sunday English service in our church in Englewood, NJ. In our small group, together with my husband and daughter, God's presence and blessings are always felt in our gatherings. Faith also knows no boundaries, our friends in Maryland – Michael and Jill, and their three children also joined us on Sunday service via zoom.

All of us in Protestant Abbey Chapel are parents now and we can all agree that navigating parenthood is challenging. As Christian parents, we strive to teach our children about God and foster a Christ-centered environment. At church, we have Children's message as part of our Sunday service where we read bible stories and teach our children how to pray. Our yearly trip to Lancaster County in Pennsylvania, to Sight and

Sound theater has become a much-anticipated church and family outing with our kids. Seeing the bible stories come to life in a massive stage is incredible! Stories that we can share and teach our kids about courage, kindness, faith and most of all about God.

As I look back on my life these past decades, the Lord has helped me in every step – from choosing a spouse, to raising a child, from changing jobs and navigating workplace challenges, and even in making small daily life choices. He continues to guide me through it all.

As a believer in Christ, I continue to run the race of life, persevering through life's challenges and fixing my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my faith. 

Protestant Abbey Chapel Deaconess (treasurer)
Nurse at Montefiore Medical Center



How Political Interests Shape the Use of Evidence and Why Strong Science Prevails



Dahyun Choi

요약 | 본 에세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질 기준 설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비전문가 독자를 위해 풀어 쓴 글이다. 분석 결과,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연구가 정책 평가에 포함되는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규제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그 반대 성향의 연구가 더 많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학계에서 널리 인용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연구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정책 평가에 포함되었다. 즉, 과학의 정치화는 실재하지만 과학적 권위가 충분히 확립된 연구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1. Introduction: Should We Trust the Government to Follow the Science?

We hear it all the time: "follow the science." Governments claim that their policies – on air quality, public health, foo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 are grounded in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But how well does this ideal hold up in practice? When a government agency evaluates thousands of scientific studies and decides which ones to rely on, does the process truly remain neutral? Or does politics creep in, quietly shaping which evidence gets attention and which gets left on the shelf?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motivated my research. The bottom line is this: political bias in the use of science is real and measurable. But the most important, most widely recognized scientific research is remarkably resilient to that bias. The best science endures, even when politics pushes against it.

This matters for all of us. The air quality standards set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determine how much pollution is acceptable in the air we breathe. They influence whether new factories can be built near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whether power plants must install additional pollution controls. When a child with

asthma has a bad day, when an elderly person is hospitalized for heart problems made worse by smog – these outcomes are shaped, in part, by the standards the EPA sets based on its review of the science. If that review process is taint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then the standards may not fully protect public health.

2. The Setting: How the EPA Sets Air Quality Standards

The EPA is responsible for setting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ollutants that harm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se include ozone (the main ingredient in smog), particulate matter (tiny airborne particles from car exhaust, industrial emissions, and wildfires), carbon monoxide, sulfur dioxide, nitrogen oxides, and lead.

To set these standards, the EPA needs to know what the latest science says about how each pollutant affects people and ecosystems. It does this through a process called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s (ISAs)– essentially massive, systematic reviews of the scientific literature. Thousands of researchers worldwide are constantly publishing studies related to air pollution and health: whether children near highways develop asthma at higher rates, whether

ozone increases emergency room visits, or how particulate matter damages lung tissue. The EPA gathers all of these studies, evaluates their quality and relevance, and synthesizes them into a coherent assessment that serves as the scientific foundation for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This process is governed by the Clean Air Act, which mandates that standards reflect "the latest scientific knowledge." It follows established procedures: a broad initial literature search, expert evaluation, independent peer review, public comment, and publication of a final assessment. Crucially, ISAs for two key pollutants— ozone and particulate matter — were conducted under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following a 2008 revision to the review process. This allows me to directly compare how the same type of scientific evidence was treated under different political environments, within the same institutional framework — a kind of natural experiment where the science stays broadly comparable but the political context changes.

3. Finding 1: Political Bias Is Real

The first major finding is clear: the political party in power does influence which scientific studies are included in the EPA's assessments.

The Pattern

Under a Democratic administration, studies that strongly support the link between air pollution and public health harm are approximately **15% more likely** to be cited in the final assessment. This aligns with Democratic administrations' general support for stronger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a Republican administration, the pattern reverses. Studies supporting the pollution-health connection are approximately **18% less likely** to be cited. This aligns with Republican administrations' tendency to favor maintaining or loosening existing standards.

These findings hold up even after accounting for

a wide range of factors that might otherwise explain the patterns — including each study's scientific field, publication year, and funding sources.

How Large Is This Effect?

To put these numbers in perspective: the partisan effect is comparable in magnitude to the boost a study gets from being considerably more influential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In other words, having your findings align with the administration's policy preferences can boost your study's chances of being included by about as much as being a far more prominent piece of research. Political alignmen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quality or rigor of a study, exerts an influence that rivals the influence of scholarly recognition.

4. Finding 2: Strong Science Is Resilient

If the story ended there, it would be deeply discouraging. But the research reveals a crucial second pattern.

Political bias does not affect all studies equally. It is concentrated among studies with **lower scientific impact** — those that are less well-known and less widely cited by other researchers. For the most highly regarded, widely cited studies, partisan bias largely **disappears**. These high-impact studies tend to be included in assessments regardless of which party is in power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ir findings align with the administration's preferences.

Why? Two forces are at work. First, when a study is widely cited and reflects well-established findings, excluding it would be immediately notice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external reviewers, and courts. The cost of ignoring prominent evidence is simply too high. Second, government agencies care about their credibility. Excluding a well-known study that contradicts the administration's preferred policy invites criticism and litigation. For lesser-known studies, the calculus is different: excluding them is less likely to attract attention and easier to justify.

The key insight is that scientific reputation serves as a genuine check on political discretion – not a perfect one, but a meaningful one.

5. Who Reviews the Science?

A natural question follows: how does political bias enter a process designed to be objective?

Part of the answer lies in personnel. When a new administration takes office, the people involved in the science review process change dramatically. For the particulate matter assessment, approximately 75% of participants under one administration did not continue under the next. For ozone, turnover was approximately 82%.

These changes are not random. Under Democratic administrations, the process drew heavily on **academic scientists** from research universities, often in states that lean Democratic. Under the Republican administration, there were fewer academics and more participants from **state government agencies and regional EPA offices**. The independent advisory committee was particularly affected: its members shifted from university researcher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its size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This matters because professional backgrounds and institutional cultures shape how people exercise judgment – especially for studies in the gray area of moderate quality and ambiguous implications. Even with everyone acting in good faith, a team of academic researchers may collectively weight evidence differently than a team of state regulators. It is precisely in this gray area where partisan bias is most consequential.

6. What These Findings Mean

Public debate about science and politics tends to swing between two extremes. One view holds that science provides a perfectly objective basis for policy – we just need to "follow the science." The other holds that science in government is hopelessly corrupted by

politics, with findings used merely to justify whatever politicians already wanted to do.

My findings suggest that **neither extreme is correct**. Political bias is real: the party in power influences which studies appear in government assessments, and this influence is measurable and significant. Science in government is not purely neutral. But science is not merely a puppet of politics either. The most rigorous, widely recognized research retains its authority across partisan contexts. There are meaningful limits on how far political actors can distort the scientific record.

Two forces operate simultaneously. **Partisan incentives** push administrators to favor studies that align with their policy preferences – this force is strongest where there is the most room for discretion, among less prominent studies. **Scientific authority** pushes toward the inclusion of well-established research – this force is strongest where consensus is clearest and the cost of ignoring evidence is highest. The interplay between these forces produces partisan bias that is real but bounded, with the boundaries set by the strength of the underlying science.

Thi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cientists**, producing high-quality, widely recognized work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defenses against political interference. The pursuit of excellence has consequences beyond academia – it contributes directly to the integrity of policymaking. For **citizens**, supporting strong, independent scientific institutions matters. Transparency – like the EPA's publicly accessible databases that made this research possible – enables external accountability. For **policymakers**, the evidence of partisan bias is not a partisan accusation aimed at one side; it is a structural feature affecting both parties. Recognizing this should motivate bipartisan efforts to strengthen protections: ensuring advisory committees remain independent, making study selection criteria more transparent, and basing participant selection on expertise rather than political alignment.

7. Conclusion

Two findings stand together. First, political bias in the government's use of scientific evidence is real. The party in power influences which studies are included in assessments that directly inform standards affecting public health. Second, the best science endures. The most highly regarded research is cited consistently across partisan contexts, because scientific reputation creates genuine constraints on political discretion.

These findings paint a picture that is neither naive nor cynical.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politics is not a simple story of either perfect objectivity or hopeless corruption. It is a dynamic interplay in which both political interests and scientific standards shape the use of evidence – with the balance tilting toward science as the quality and visibility of the evidence increases.

For those who care about the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the message is one of guarded optimism. The system is imperfect, and vigilance is warranted. But the pursuit of rigorous, well-recognized science is not futile. I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we have for ensuring that evidence-based policymaking lives up to its name. ■

References

- Bolsen, Toby, and James N. Druckman. 2015. "Counteracting the Politicization of Sci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65(5): 745 – 769.
- Carpenter, Daniel P. 2001. *The Forging of Bureaucratic Autonomy: Reputations, Networks, and Policy Innovation in Executive Agencies, 1862 – 1928*.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rnas, Alexander C., Timothy M. LaPira, and Dashun Wang. 2025. "Partisan Disparities in the Use of Science in Policy." *Science* 388(6745): 362 – 367.
- Gailmard, Sean, and John Patty. 2012. *Learning While Governing: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in the Executive Bran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auchat, Gordon. 2012. "Politicization of Science in the Public Sphe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2): 167 – 187.

Guston, David H. 2000.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Assuring the Integrity and Productivity of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sanoff, Sheila. 1998. *The Fifth Branch: Science Advisers as Policymakers*. Harvard University Press.

Lewis, David. 2008.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Perform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Lowande, Kenneth. 2019. "Politicization and Responsiveness in Executive Agencies." *Journal of Politics* 81(1): 33 – 48.

Moe, Terry. 1982. "Regulatory Performance and Presidential Administ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2): 197 – 224.

Pamuk, Zeynep. 2021. *Politics and Expertise: How to Use Science in a Democratic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ielke Jr, Roger A. 2007. *The Honest Broker: Making Sense of Science in Policy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on, Mark. 2019. "Politicization and Expertise: Exit, Effort, and Investment." *Journal of Politics* 81(3): 878 – 891.

Wagner, Wendy Elizabeth, and Rena Steinzor. 2006. *Rescuing Science from Politics: Regulation and the Distortion of Scientific Resear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od, Dan, and Richard Waterman. 1991. "The Dynamics of Political Control of the Bureau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3): 801 – 828.

About the Author

Dahyun Choi is a Ph.D.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at Princeton University. She studies how government institutions interact with firms and nonprofits to produce, frame, and strategically use expertise in American politics, with a focus on the intersection of political economy, scientific expertise, and emerging technologies.

Contact: dahyunc@princeton.edu

